

# 중국 13차 5개년 계획기간의 지역별 정책방향: 환발해지역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이상훈 부연구위원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김주혜 연구원



# 중국 13차 5개년 계획기간의 지역별 정책방향 환발해지역

## 요약

- ▶ 베이징(北京)시와 톈진(天津)시, 허베이(河北)성, 산둥(山東)성으로 구성된 환발해지역은 13·5 계획기간 「징진지 협동발전 계획강요」를 기반으로 한 지역발전을 통해 각 지역의 경제구조 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2020년까지 징진지 통합개발에 총 42조 위안을 투입하여 교통인프라 구축과 산업구조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환경보호·에너지절약 분야에서의 수요가 클 것으로 기대됨.
- 2016년 ‘한·중 철강분야 대기오염 방지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산둥성과 허베이성 소재 제철소에 집진·탈질·탈황 등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임. 우리나라는 양국 간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한국 환경기술의 우수성을 검증하고, 후속·파생사업 수주를 이끌어내 한국기업의 중국 환경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 베이징시는 13·5 계획기간 과학기술혁신 역량강화, 첨단산업 및 서비스업 발전에 역점을 둘 계획임. 특히 서비스부문의 대외개방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서비스시장 진출이 필요한 지역임.
- 13·5 계획기간 정치·문화·국제교류·과학기술혁신을 중심으로 도시기능을 재편할 계획이며, 전통제조업 및 비수도 기능의 이전과 세계 일류 수준의 과학기술혁신 중심지 건설을 위한 사업이 집중 추진될 것임.
- 베이징은 서비스업 개방 확대에 관한 종합 시범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과학기술, 인터넷 및 정보통신, 여행, 문화교육, 금융, 건강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촉진시킬 예정임. 우리 기업은 한·중 FTA의 서비스 개방분야를 중심으로 진출을 적극 추진하되, 특히 여행서비스와 문화산업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됨.
- ▶ 톈진시는 선진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시험구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제도혁신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투자여건 개선이 기대됨.
- 톈진시는 「중국제조 2025」와 연계하여 장비제조, 차세대 정보기술, 항공우주 등 10대 선진제조업을 육성하고 물류, 전자상거래 등 현대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보여 차세대 정보기술, 전자상거래 등 한국 경쟁우위 분야의 현지진출 또는 사업협력 확대 가능.
- ▶ 허베이성은 징진지 협동발전전략의 추진에 따른 산업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경제구조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베이징·톈진 배후의 새로운 생산기지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13·5 계획기간 산업단지와 협력단지 등 베이징의 산업기능 이전을 위한 플랫폼을 건설하고 제조업 기능 이전을 적극 수용할 방침이며, 한국은 산업 및 기업 이전에 따른 새로운 산업수요에 적합한 중간재 수출을 확대해야 할 것임. 최근 장비제조, 자동차산업 등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어 관련 부품 등 중간재 수출이 유망함.
- ▶ 산둥성은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구와 산업협력단지가 모두 입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양국간 교류협력 확대와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한·중 FTA의 전략지역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 「인터넷 플러스 행동계획」과 연계하여 현대 정보기술과 산업의 심층 융합을 통한 스마트시티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전력, 가스, 교통, 방범 등 광범위한 분야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이 시도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된 솔루션 및 제품 보유 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지역인 웨이하이(威海)시 및 한·중 산업단지로 지정된 옌타이(烟台)시와의 교류협력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산둥성에서의 성공경험을 기반 삼아 중국 전 지역으로 교류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차 례

1. 환발해지역 경제 개황
2. 환발해지역 13·5 계획의 주요 내용
  - 가. 12·5 계획과의 비교
  - 나. 5대 키워드 분석
3. 지역별 13차 5개년 계획의 핵심정책
  - 가. 베이징: 세계 일류 수준의 과학기술혁신 중심지 건설
  - 나. 톈진: 산업의 융복합 및 고도화 추진
  - 다. 허베이: 경제구조 전환 가속화
  - 라. 산둥: 대외개방·국제협력 정책의 다원화
4. 평가 및 전망
  - 가. 지역 종합
  - 나. 베이징
  - 다. 톈진
  - 라. 허베이
  - 마. 산둥

참고문헌

## 1. 환발해지역 경제 개황

■ 환발해(环渤海)지역은 중국 전체 GDP의 약 20%(2015년 기준)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으로, 12·5 계획기간(2011~15년) 지역총생산(GRDP)이 연평균 8.7% 성장함.

- 베이징시(北京市), 톈진시(天津市), 허베이성(河北省)<sup>2)</sup>, 산둥성(山东省)으로 구성된 환발해지역은 △ 금융 △ 장비제조 △ 석유화학 △ 정보통신 등이 발달한 지역으로, 중국의 대표적인 기술혁신 서비스업 및 첨단제조업 중심지임.
- 2015년 중국경제에서 환발해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GRDP, 고정자산투자, 소비재 판매액, 무역액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소폭 하락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중은 확대됨.
- 지역별로는 톈진의 GRDP 성장률이 환발해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특히 무역액과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이 다른 지역을 크게 상회함.

표 1. 환발해지역 경제규모 및 위상

항목	규모			중국 내 비중			
	2011년	2015년	연평균성장률(%)	2011년(%)	2015년(%)	증감률(%p)	
GRDP (억 위안)		97,437	132,315	8.7	20.1	19.6	-0.6
	베이징	16,252	22,969	7.4	3.4	3.4	0.0
	톈진	11,307	16,538	11.4	2.3	2.4	0.1
	허베이	24,516	29,806	7.8	5.1	4.4	-0.7
	산둥	45,362	63,002	9.0	9.4	9.3	-0.1
고정자산투자 (억 위안)		55,786	95,548	15.2	18.0	17.3	-0.7
	베이징	5,520	7,446	7.8	1.8	1.3	-0.5
	톈진	7,040	11,815	13.8	2.3	2.1	-0.2
	허베이	15,795	28,906	16.3	5.2	5.2	0.0
	산둥	25,928	47,381	16.3	8.6	8.6	0.0
소비재 소매판매액 (억 위안)		35,808	56,280	12.0	19.1	18.7	-0.4
	베이징	7,222	10,338	9.4	3.9	3.4	-0.5
	톈진	3,395	5,246	11.5	1.8	1.7	-0.1
	허베이	8,036	12,935	12.6	4.3	4.3	0.0
	산둥	17,156	27,761	12.8	9.2	9.2	0.0
수출입규모 (억 달러)		6,085	5,958	-0.5	16.7	15.3	-1.4
	베이징	1,286	1,161	-2.5	3.5	3.0	-0.5
	톈진	1,117	1,191	1.6	3.1	3.1	0.0
	허베이	841	803	-1.1	2.3	2.1	-0.2
	산둥	2,841	2,803	-0.3	7.8	7.2	-0.6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361	495	11.2	17.3	18.4	1.1
	베이징	71	90	8.6	3.4	3.4	0.0
	톈진	131	189	13.1	6.3	7.0	0.7
	허베이	47	64	10.8	2.2	2.4	0.2
	산둥	112	152	10.8	5.4	5.7	0.3

주: 1) GRDP의 연평균성장률은 실질기준이며, 나머지 지표는 명목기준임.

2) 각 지표의 증감률(%p)은 2015년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2011년 대비 증감 수준.

3) 외국인직접투자는 2015년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아 2014년 데이터를 사용.

자료: CEIC database; KITA; 중국국가통계국; 「北京市2011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北京市“十二五”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2011年天津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2015年天津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河北省2011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河北省2015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2011年山东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2015年山东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1) 이하 본문에서는 12차 5개년 계획과 13차 5개년 계획을 각각 12·5 계획과 13·5 계획으로 약칭.

2)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은 수도 경제권을 구성하는 지역으로, '징진지(京津冀)'라고 약칭.

- 12·5 계획기간 환발해지역은 지속적인 고성장에 대한 기대로 중국 전체 목표성장률인 7.0%을 상회하는 성장목표를 제시하였고, 전반적인 경기둔화 가운데서도 베이징을 제외한 3개 지역이 목표치를 달성하며 양호한 실적을 나타냄.
  - 12·5 계획기간 텐진, 허베이, 산둥은 각각 12.4%, 8.5%, 9.4%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텐진의 경우 2015년 전국 4위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였음. 반면 베이징은 7.5%의 성장률을 보여 목표성장률(8.0%)을 하회함.
  - 12·5 계획기간 중 전국 연평균성장률은 8.0%로, 텐진·허베이성·산둥성의 연평균성장률이 전국 평균을 각각 4.4%p, 0.5%p, 1.4%p 상회
  - 12·5 계획기간 베이징의 성장 둔화세가 두드러졌으며, 2015년 목표치 대비 2016년 목표성장률을 0.5%p 하향조정함.
  - 최근 5년간 환발해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텐진은 2011년 성장률에 비해 2015년도 성장률이 7.1%p 떨어져 4개 지역 중 하락폭이 가장 컸음.
  
- 환발해지역의 각 지방정부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와 성장동력 하락을 반영하여 13·5 계획기간 목표성장률을 12·5 계획기간 대비 1.5%p 이상 낮은 6.5~8.5%로 제시함.
  - 2016년의 경우 모든 지역이 중국 전체 목표성장률 이상의 성장률을 목표치로 제시하였으나, 지역별로는 베이징과 산둥성이 2015년보다 낮은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음.
  - 환발해지역은 경기둔화 국면을 타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으로 △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으로의 전환 △ 산업구조 전환 및 고도화 추진 △ 개방 및 국제협력의 심화 등을 강조함.

표 2. 환발해지역 경제성장률 추이 비교

(단위: %)

	기간 비교			연도별 추이							
	12·5기간(2011~15년)		13·5기간 (2016~20년) 목표치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목표 성장률	
	목표치	달성치						목표치	등락 여부		
베이징	8.0	7.5	6.5	8.1	7.7	7.7	7.3	6.9	7.0	6.5	하락
텐진	12.0	12.4	8.5	16.4	13.8	12.5	10.0	9.3	9.0	9.0	변화 없음
허베이	8.5	8.5	7.0	11.3	9.6	8.2	6.5	6.8	7.0	7% 내외	변화 없음
산둥	9.0	9.4	7.5	10.9	9.8	9.6	8.7	8.0	8.5	7.5~8%	하락
중국 전체	7.0	8.0	6.5 이상	9.3	7.7	7.7	7.3	6.9	7.0	6.5~7%	변화 없음

주: 1) 달성치는 각 지방정부 발표수치를 근거로 하며, [표 1]에서 제시한 GRDP의 연평균성장률과는 차이가 있음.

2) 등락여부는 2015년 목표치 대비 2016년의 목표성장률의 변화를 의미함.

자료: 「粤苏进七万亿俱乐部 供给侧改革成各省实现目标重要途径」(2016. 1. 28), 『人民网』; CEIC Database; 北京市2011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北京市“十二五”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2011年天津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2015年天津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河北省2011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河北省2015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2011年山东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2015年山东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 2. 환발해지역 13·5 계획의 주요 내용<sup>3)</sup>

### 가. 12·5 계획과의 비교

- 환발해지역은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12·5 계획기간의 8.0~12.0%에서 13·5 계획기간 6.5~8.5%로 하향 조정한 반면, 경제구조 개선과 R&D와 관련된 지표를 상향 제시함.
  - 중국의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이 불투명한 가운데 중속성장시대에 진입한 것을 감안하여 13·5 계획기간 목표성장률을 전 기보다 1.5%p 이상 낮게 설정함.
  - 텐진과 산둥의 경우 12·5 계획기간 당초 목표치를 0.4%p 초과해 12.4%와 9.4%의 성장률을 달성했음에도 13·5 계획기간 성장률 목표치를 비교적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된 것이 특징임.
  - 12·5 계획 목표로 제시하였던 3차 산업 비중은 4개 지역 모두 목표치 이상의 성과를 거두면서 환발해지역에서의 산업구조 조정이 순조롭게 진행.
  -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된 것과 달리 3차 산업 비중이나 GRDP 대비 R&D 비중 등 경제구조 개선과 관련한 지표는 높은 수준의 목표치를 제시함.
  - 환발해지역은 13·5 계획기간 3차 산업의 비중을 2~10%p 상향 조정할 방침이며, 지역별로는 베이징 80%, 텐진과 산둥은 55%를 목표로 제시함.
  - 베이징, 텐진, 산둥은 GRDP 대비 R&D 비중을 12·5 계획기간 대비 0.4%p 이상 상향 조정하였으며, 특히 베이징의 경우 중국 내 가장 높은 수준인 6.0%를 제시함.

표 3. 환발해지역 12·5 계획과 13·5 계획 목표치 비교

항목	베이징			텐진			허베이			산둥		
	12·5 목표치	12·5 달성치	13·5 목표치	12·5 목표치	12·5 달성치	13·5 목표치	12·5 목표치	12·5 달성치	13·5 목표치	12·5 목표치	12·5 달성치	13·5 목표치
GRDP 연평균성장률(%)	8.0	7.5	6.5	12.0	12.4	8.5	8.5 내외	8.5	7.0 내외	9.0	9.4	7.5 내외
1인당 GRDP(위안)	-	(17,000 달러)	-	-	(17,000 달러)	-	-	4만	-	-	(10,000 달러)	-
3차 산업의 비중(%)	78	79	80	50	50	55	38	39.9	-	45	47	55
GRDP 대비 R&D 비중(%)	5.5	-	6	3	3	3.5	1.6	-	-	2.2	2.2	2.6
도시화율(%)	-	-	(2,300만 이내)	-	-	84%	54	50	60	55	-	65
1인당 도시주민 가처분소득 증가율(%)	8	7.2	(2010년 의 2배)	10	10.2	-	8.5	(26,000 위안)	(2010년 의 2배)	10	8	(2010년 의 2배)
1인당 농민소득 증가율(%)	8	7.8	(2010년 의 2배)	10	10.2	-	8.5	(11,000 위안)	(2010년 의 2배)	10	10.1	(2010년 의 2배)

주: 1) [표 2]와 마찬가지로 12·5 기간 GRDP 연평균성장률의 달성치는 각 지방정부에서 발표한 수치를 근거로 함.

2) 목표치를 발표하지 않은 경우는 '-'로 표기함.

3) 항목별로 제시된 단위와 다른 형태로 발표된 수치의 경우 ( )로 표기함.

자료: 「中共北京市委关于制定北京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 「中共山东省委关于制定山东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 「中共天津市委关于制定天津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 「中共河北省委关于制定河北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

3) 4개 지역에서 발표한 「13차 5개년 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문(이하 13·5 건의문)」과 「2016년 정부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작성.

- 환발해지역은 13·5 계획기간 주요 발전목표를 △ 혁신 △ 조화 △ 녹색 △ 개방 △ 민생이라는 5대 키워드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12·5 계획의 발전목표를 대부분 계승하는 내용임.
- 12·5 계획기간에는 제조업 개조 및 고도화와 전략적 신흥산업의 육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으나, 13·5 계획에서는 이러한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을 국가전략인 「중국제조 2025」 및 「인터넷 플러스」와 연계하여 산업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구체화
  - 베이징은 「중국제조 2025」 액션플랜을 발표하고 신에너지자동차, 집적회로, 로봇, 3D 컴퓨터산업 등의 8대 신흥산업을 첨단화하여 녹색제조, 스마트제조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임. 또한 도시교통, 공공안전, 생태환경 등 15개 중점영역에서 「인터넷 플러스」 전략을 시범 실시할 계획임.
  - 텐진은 2016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중국제조 2025」와 연계하여 첨단 장비제조, 차세대 정보기술, 항공우주, 바이오의약 등 10대 선진제조업 클러스터를 확장할 방침임을 밝히고, 그중 5개 분야의 산업규모를 5천억 위안 이상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에 더해 「인터넷 플러스」 전략을 통해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 및 제조방식의 전환을 추진하고 스마트제조 시범지역을 건설할 계획임.
  - 허베이는 「중국제조 2025」 및 「인터넷 플러스」 전략을 전통산업 개조와 신산업·산업태 성장의 중요한 기회로 삼아 장비제조업의 첨단화·건축자재산업의 녹색화 등을 추진하고, 동시에 선진장비제조,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의약, 신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한 신흥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임.
  - 산둥은 ‘스마트 산둥’ 건설의 일환으로 「인터넷 플러스 액션플랜」을 추진하여 정보기술과 산업의 심층적 융합을 이룬다는 방침이고, 「중국제조 2025」 전략의 추진과 더불어 선진제조업기지 건설을 가속화할 방침임.

표 4. 환발해지역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전략의 육성산업 및 추진 전략

국가전략	지역	주요 육성산업 및 추진 전략
중국제조 2025	베이징	신에너지자동차, 집적회로, 로봇, 3D 컴퓨터 산업 육성
	텐진	장비제조, 차세대 정보기술, 항공우주, 바이오의약, 신에너지, 지능형 단말장치산업 육성
	허베이	철강산업의 첨단화, 장비제조업의 스마트화 추진,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의약 산업 육성
	산둥	선진제조기지 건설 추진
인터넷+	베이징	도시교통, 공공안전, 생태환경 등 15개 중점영역
	텐진	스마트제조 시범지역 건설, 사물인터넷 기술 발전, 전자행정 일체화 플랫폼 건설, 도시 관리 및 서비스 체계의 네트워크화 추진
	허베이	철강산업의 첨단화·장비제조산업의 스마트화 추진,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의약 산업 육성
	산둥	정보기술산업 발전, 스마트시티 건설과의 연계 추진

자료: 「中共北京市委关于制定北京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 「中共山东省委关于制定山东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 「中共天津市委关于制定天津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 「中共河北省委关于制定河北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 「2016年北京市政府工作报告」; 「2016年山东省政府工作报告」; 「2016年天津市政府工作报告」; 「2016年河北省政府工作报告」.

- 13·5 계획기간 환발해지역의 조화 발전은 「징진지 협동발전 계획 강요」<sup>4)</sup>를 중심으로 새롭게 추진될 예정임.
- 징진지 협동발전 전략은 베이징의 비수도(非首都) 기능의 이전과 역내 지역간 기능 분담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텐진과

4) 2015년 4월 30일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징진지협동발전계획강요(京津冀协同发展规划纲要)」가 심의·통과되었으며, 이는 ‘징진지 협동발전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임.

허베이로 베이징의 일부 산업기능을 이전하고 역내 일체화된 교통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간 조화로운 산업발전을 이루겠다는 방침임.

- 내수확대와 관련하여 12·5 계획기간에는 소비 진작에 초점을 둔 반면, 13·5 계획에서는 공급측 개혁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총수요 확대와 더불어 공급시스템의 수준 및 효율을 제고하고 유효공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임.<sup>5)</sup>
  - 베이징은 2016년 중점업무 중 하나로 공급측 개혁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모바일 인터넷이나 스마트 TV를 이용한 정보서비스의 발전을 통해 정보소비를 독려하는 등 유효공급을 늘려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계획임.
  - 텐진은 국유기업 개혁 추진을 통해 국유자본 구조 및 거버넌스의 최적화를 이루고 이와 함께 기업제도 개혁과 혼합소유제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유효공급을 확대할 방침임.
  - 허베이는 공급시스템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낙후된 제조기술과 생산설비를 정리하는 한편, 2020년까지 철강, 시멘트 등 공급과잉산업의 생산량을 일정 수준으로 축소·통제할 계획임.
  - 산둥은 수요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며, 고부가가치 제품의 공급을 확대하는 대신 철강, 석탄, 조선, 타이어 등 산업의 과잉 생산능력을 조정할 계획임.

## 나. 5대 키워드 분석<sup>6)</sup>

■ 환발해 4개 지역은 13·5 계획의 5대 키워드 중 모두 혁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13·5 계획을 토대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역량 강화와 함께 징진지 협동발전전략 및 구조개혁 추진에 중점을 둘 계획임.

- 베이징은 「13·5 계획 건의문」에서 혁신, 녹색, 조화, 민생, 개방 순으로 주요 발전이념을 제시하였으며, 징진지 협동발전 계획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한 비수도 기능의 이전을 향후 5년의 주요 목표로 제시함.
  - 2016년의 첫 번째 중점업무 역시 징진지 협동발전 계획의 추진을 제시하고 교육·의료 공공서비스 기구와 행정사업단위를 일부 이전하는 등 비수도 기능을 분산시키되 정치, 문화, 국제교류, 과학혁신 중심의 수도 핵심 역할에 집중할 방침임.
- 텐진은 「13·5 계획 건의문」과 「2016년 업무보고」에서 혁신, 조화, 녹색, 개방, 민생 순으로 주요 업무를 제시하였으며,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신산업·신업태·신기술을 통한 경제 업그레이드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음.
  - 2016년 중점추진 업무로 경제발전의 신동력 육성을 위한 혁신능력의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징진지 협동발전전략을 통한 조화로운 발전을 강조함.
- 허베이는 「13·5 계획 건의문」에서 경제성장 동력의 전환, 균형 발전, 사람과 자연의 조화 및 공생, 개혁개방의 가속화, 민생보장수준 제고를 5대 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발전이념을 혁신, 조화, 녹색, 개방, 민생 순으로 제시.
  - 2016년 중점 업무로 혁신발전과 함께 산업구조 개혁을 강조하였으며 수요측 개혁과 공급측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되 공급측 개혁에 더욱 초점을 맞출 방침임.
- 산둥은 「13·5 계획 건의문」에서 혁신, 조화, 녹색, 개방, 민생 순으로 발전 이념을 제시하였고, 2016년 업무 보고 내 13·5 계획 관련 중점 업무로 혁신과 공급측 개혁이 강조됨.
  - 2016년 중점 업무로 공급측 구조개혁을 단행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의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과잉생산능력의 조정을 제시함.

5) 공급측 개혁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KIEP 북경사무소(2015)의 「공급측 개혁의 주요 내용과 전망」을 참고.

6) 중앙정부의 13·5 계획 건의안에서 제시되었던 혁신, 조화, 녹색, 개방, 민생을 키워드로 함.

- [혁신] 환발해지역은 공통적으로 과학기술역량 강화와 선진제조업·전략적 신흥산업·현대 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재편을 '혁신'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 베이징은 과학기술혁신중심지 건설을 강조하고 텐진은 「중국제조 2025」와 연계한 전반적인 산업구조 고도화, 산둥은 '스마트(智慧) 산둥'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
- 베이징은 우수한 과학기술자원을 활용하여 국제적 영향력을 갖춘 과학기술혁신중심지 건설을 가속화하고, 고부가가치화·정밀화·첨단화(高精尖)된 경제구조를 구축하여 발전의 질과 효율을 높일 계획임.
  - 2016년에는 중관춘 전면혁신시범정책 시행, 과학기술 성과의 사용 및 수익관리 개혁 등과 같은 영역에서 중관춘 자주혁신 시범구의 선도적 개혁을 추진하고, 시범구 내 중관춘과학성·미래과학기술성 등을 설립하여 혁신공간으로 재편할 계획임. 또한 기업의 R&D 투자 장려정책의 제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혁신의 추진 등 기업혁신을 주도해나갈 방침임.
  - 첨단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여 금융·정보·과학기술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하고 「중국제조 2025 베이징 액션플랜」을 시행함으로써 8대 신흥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임.

표 5. 베이징시 2016 정부업무보고: '혁신' 관련 주요 육성산업

산업분류	주요 육성산업	
서비스	금융서비스	보험서비스 등
	정보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산업 등
	과학기술서비스	연구개발서비스, 지식재산권서비스, 시험인증서비스 등
제조	8대 신흥산업	신에너지자동차, 집적회로, 로봇, 3D 컴퓨터산업 등

자료: 「2016年北京市政府工作报告」.

- 텐진은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새로운 발전동력 육성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중국제조 2025」와 연계하여 선진 제조업연구개발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생산자 서비스업 및 소비자 서비스업에서의 새로운 산업체계를 구축하여 전반적인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룬다는 목표를 제시함.
- 2016년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칭화(清华)첨단장비연구원, 베이대(北大)정보기술연구원 등 선도적 연구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점실험실, 기업기술센터 등 혁신기구 설립을 추진할 계획임. 이와 함께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10만 개, 강소기업 5,000개, 국가첨단기술기업 5,000개를 육성할 방침임.
- 스마트제조 시범지역을 건설하고 첨단장비, 차세대정보기술, 항공우주, 바이오의약 등 10대 선진제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금융·물류·도시형농업 등 현대서비스업도 적극 발전시킬 방침임.
- 허베이는 징진지 협동공동체를 조성하여 베이징과 텐진의 과학기술 성과를 적극 수용하되 독자적인 연구개발서비스 플랫폼을 완비하여 과학기술혁신을 추진할 계획임. 또한 '대중 창업, 만민 혁신(大众创业 万众创新)'을 모토로 창업혁신단지를 건설하여 양질의 창업환경을 제공하고, 창업 혁신 인재의 육성 및 유치에 집중할 계획임.
- 2016년에는 산업기술혁신협회와 기술교역시장 설립을 가속화하고 국가중점실험실, 공정기술연구센터 및 중대과학기술 인프라를 갖추는 데 주력할 계획임. 또한 투명하고 질서 있는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서비스 및 정책지원체계를 완비하여 창업을 적극 장려할 계획임.
- 산업구조조정과 제조업 혁신에 역점을 두고 철강 산업의 첨단화, 장비제조업의 스마트화, 건축자재산업의 녹색화를 추진할 예정임. 이와 함께 2020년까지 공업부가가치에서 신흥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 되도록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바이오의약 등의 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임.
- 산둥은 정보기술과 산업의 심층적 융합을 통해 경제사회의 정보화와 네트워크화 발전을 이루는 '스마트(智慧) 산둥' 건설을 중점 추진할 계획임.

표 6. '스마트(智慧) 산둥' 건설의 주요 과제

주요 실시과제	세부 내용
'인터넷 플러스' 액션플랜 실시	△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의 광범위한 활용 △ 생산의 스마트화, 경영의 네트워크화, 서비스의 원격화를 통해 생산·경영 프로세스 재구축
국가 빅데이터 전략 실시	△ 차세대 인터넷, 방송망, 광대역 통신망 건설 가속화 △ 농촌·농업정보화시범사업 가속화 △ 정부서비스, 사회서비스, 민생서비스의 정보화 수준 제고

자료: 「中共山东省委关于制定山东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

- '인터넷 플러스' 와 연계하여 생산 및 경영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국가 빅데이터 전략의 추진을 통해 정부·사회·민생 서비스의 전반적인 정보화 수준을 제고할 방침임.
- 2016년에는 차세대 인터넷 등 정보인프라를 완비하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체계의 구축을 가속화 할 계획임.

표 7. 환발해지역 13·5 건의문(1): 혁신정책

지역	목표	주요과제
베이징	혁신 발전전략의 심화, 발전의 질과 이익 제고	△ 전국 과학기술혁신 중심지 건설 가속화 △ 경제발전 신동력 적극 육성 △ 고부가가치·정밀·첨단의 경제구조 구축 △ 경제성장 신잠재력 발굴 △ 징진지(京津冀) 산업 연계 및 협력 추진
톈진	혁신발전을 통한 경제 업그레이드	△ 혁신발전의 신동력 육성 △ 선진제조업기지 조성 △ 현대 서비스경제의 새로운 체계 구축 △ 현대 도시형 농업의 새로운 발전 추진 △ 해양경제발전의 신공간 개척
허베이	혁신주도형 발전, 성장동력의 전환	△ 과학기술혁신, 금융혁신, 관리혁신 추진 △ 혁신·창업 인재 육성 및 집적 △ 대중창업, 만인혁신 추진 △ 현대 인프라 건설의 신공간 개척
산둥	새로운 성장동력 강화	△ 혁신주도형 전략의 전면 실시 △ 현대농업 발전 가속화 △ 선진제조업 발전 △ 현대서비스업의 강대한 발전 △ 스마트(智慧) 산둥 건설 추진 △ 발전 신체제 적극 구축

자료: 「中共北京市委关于制定北京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 「中共山东省委关于制定山东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 「中共天津市委关于制定天津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 「中共河北省委关于制定河北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

■ [조화] 4개 지역이 공통적으로 「징진지협동발전규획」에 따른 지역간 조화로운 균형발전과 도농 발전 일체화를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였으며, 베이징은 수도로서 규획과 관련한 주도적 역할을 하고 톈진과 허베이는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 해소와 산업 이전에 역점을 두고 있음.

- 베이징은 「징진지협동발전규획」과 연계하여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징진지 협동발전 중부핵심기능구, 서북부생태보존구 기능에 따라 각 지역(区·县)의 발전방향 및 중점산업을 조정할 계획임. 이와 함께 농촌개혁을 가속화하고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여 도시와 농촌 간 발전 격차를 줄이는 데 주력할 예정임.
- 2016년에는 구시가지의 기능을 재편하여 인프라 구축과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동시에 정치, 문화, 국제교류 등 고급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신시가지의 중심기능을 강화할 방침임.
- 종합적인 농촌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 현대농업 시범구를 건설하여 신형 농촌사회를 만드는 데 집중할 계획임.



표 8. 징진지 협동발전계획의 지역별·기간별 발전 목표

구분	지역	주요 내용	
지역 기능	지역 공통	-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권 형성 - 지역의 통합발전을 견인하는 개혁 선도 지역 - 중국 전역의 혁신과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신동력 - 생태환경 회복·개선 시범지역	
	베이징	- 정치, 문화, 국제교류, 과학기술혁신의 중심지	
	톈진	- 선진제조업 R&D 기지, 북방지역 국제 항공운송의 핵심지역, 금융혁신 시범지역, 개혁개방 선행지역	
	허베이	- 현대 물류기지, 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 시범지역, 신형(新型) 도시화 및 도농 통합발전 시범지역	
	산둥	- 산둥성은 징진지 협동발전전략의 핵심지역은 아니나, 더저우(德州)시가 징진지 협동발전 시범구 조성의 전략지로 지정됨. (일구) 징진지 남부 주요 생태구의 산업화 (사가지) 산업이전기지, 과학기술성과 전환기지, 우수 농산물 공급기지, 노동력 공급기지	
기간별 목표	기간	목표	세부 추진과제
	단기 (~2017년)	베이징의 비(非)수도 기능 분산 기본적인 협동발전 로드맵과 업무체제 확정	- 베이징 내 비(非)수도 기능의 순차적인 완화 - 교통 일체화, 생태환경 보호, 산업 고도화 및 이전 등 핵심 영역에서 우선적인 성과 달성 - 개혁 심화, 혁신, 시범사업의 순차적 추진 등 뚜렷한 통합 발전 성과 달성
	중기 (~2020년)	베이징의 인구문제 해소 및 지역 교통 네트워크 구축 중점 추진, 징진지 통합을 위한 추진과제 심화 실시	- 베이징 상주인구 2,300만 명 이내로 통제, 대도시병 등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해소 - 징진지지역 일체화 교통네트워크 구축 - 생태환경 개선 - 지역 간 산업 연계 발전 추진 - 공공서비스 공동 구축 및 공유 - 통합발전 메커니즘의 효과적인 운영 - 역내 발전격차 축소 - 징진지지역의 통합발전 및 공생 구도 형성
	장기 (~2030년)	징진지지역의 통합 발전을 통해 국제 경쟁력과 영향력을 갖춘 지역으로 발전	- 수도의 핵심기능 최적화 - 징진지 일체화 구도 구축 - 합리적인 지역경제구도 형성 - 전체적으로 우수한 생태환경 조성 - 공공서비스 수준 균등화 실현 - 국제 경쟁력 및 영향력을 갖춘 중요 지역으로 성장 - 중국의 지역 경제발전 견인

자료: 『官方明确京津冀功能定位 北京担当“四个中心”』(2015. 8. 23), 『中国新闻网』; KIEP 북경사무소(2015), 『징진지 협동발전계획강요 발표』, KIEP; 『德州纳入京津冀规划 详解“一区四基地”战略地位』(2015. 7. 15), 『齐鲁网』.

- 톈진은 징진지 협동발전전략의 추진을 통해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 해소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첨단산업 발전벨트를 조성할 계획임. 이와 함께 특색 있는 소도시와 농촌을 근간으로 한 도농체계를 수립하여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에 주력할 방침임.
- o 도시와 농촌의 조화 발전을 위한 도농발전체계를 구축하고 신형도시화를 적극 추진하여 2020년까지 도시화율 84%를 달성할 계획임.
- o 징진지 협동발전전략을 적극 추진하여 베이징의 혁신자원과 산업을 흡수하고, 허베이와 산업연계 및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이와 함께 베이징-톈진 협력시범구를 건설하여 산업의 상호보완, 기능의 이전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임.
- 허베이는 징진지 협동발전전략에 따라 베이징의 산업기능 이전에 초점을 맞추되 제조업 기능은 성(省)급 이상의 산업단지나 산업협력단지로, 의료·교육 등 사회 공공서비스 기능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집중되어 있고 생태환경이 양호한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임.

- 2016년에는 징진지 협동발전을 우선 과제로 삼고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 이전과 발전 플랫폼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등 베이징으로부터 산업이전을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건설하고, 교통의 일체화·생태환경보호·산업 업그레이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산둥은 '양구일권일대(两区一圈一带)<sup>7)</sup>'의 지역발전전략을 통해 산둥성 내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징진지 협동발전 계획강요」에 따라 더저우(德州) 지역 내 징진지 협동발전 시범구 조성을 도모.
- 2016년에는 산둥반도남색경제구(山东半岛蓝色经济区)에 국가급 신구로 지정된 칭다오서해안신구(青岛西海岸新区) 건설을 가속화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첨단산업 육성과 해양산업 클러스터(海洋经济聚集区)를 조성하여 해양경제가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 되도록 할 예정이다.
- 황하삼각주 고효율생태경제구(黄河三角洲高效生态经济区)에는 임항산업구(临港产业区)와 각종 산업단지의 건설을 추진하고 자원이용의 효율화와 생태환경 개선을 통해 현대생태산업체계의 발전을 도모할 방침임.
- 또한 성도도시군경제권(省会城市群经济圈)에는 지난(济南)을 중심으로 경제, 금융, 물류, 과학기술 혁신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서부경제용기대(西部经济隆起带)는 특색경제의 발전과 구역(区域)중심의 도시 건설을 가속화하여 성(省) 내 핵심 성장축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표 9. 환발해지역 13·5 건의문(2): 조화정책

지역	목표	주요과제	
베이징	지역간, 도농간의 조화로운 균형발전	△ 「징진지협동발전계획」의 총괄 △ 기능에 따른 지역 구분으로 발전 유지	△ 합리적 도시체계 수립 △ 도농 발전 일체화 촉진
텐진	조화발전 촉진, 전반적 발전효율 제고	△ 징진지 협동발전의 심화 △ 도농 발전 일체화 추진 △ 도시화와 정보화 융합발전 가속화	△ 안전보장과 생산건설의 발전 △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조화로운 발전
허베이	조화발전 견지, 균형발전 구조 구축 가속화	△ 징진지 협동발전 임무 실현 △ 성 내 전 지역의 조화발전 추진	△ 도농 조화발전 추진 △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조화로운 발전
산둥	균형·융합의 새로운 구조 구축	△ 견고한 지역발전전략 추진 △ 도농 발전 일체화 촉진 △ 대륙과 해양의 조화발전	△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조화로운 발전 △ 교통 등 인프라 건설 강화

자료: 표 7과 동일.

■ [녹색] 환경오염관리 역량 강화와 녹색공간 조성이 공통적인 주요 과제이며, 특히 베이징은 대기와 수질오염 관리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텐진은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주체기능구 역할을 강조함.

- 베이징은 「대기정화액션플랜(清洁空气行动计划)」을 실시하여 대기환경을 엄격히 관리하고, 「국무원 수질오염방지 행동계획 실시 의견」에 따라 농업수도세 종합개혁 실시, 농업용수 이용량 축소, 재생수 이용으로 전면적인 절수(节水)형 사회를 건설하는데 주력할 방침임.
- 2016년에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농촌의 석탄 사용,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등을 중점 관리하고, 「오수처리시설 건설 3개년 계획」을 실시하여 오수관리 역량을 강화할 방침임.
- 텐진은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주체기능구 건설 계획을 전면 추진하여 개발금지구역과 제한개발구역을 확정하고, 중점개발구역 내 금지·제한 산업을 명확히 규정할 방침임. 또한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녹색장벽 구축에 초점

7) '양구일권일대(两区一圈一带)'에서 ① 양구: 산둥반도남색경제구(山东半岛蓝色经济区), 황하삼각주고효율생태경제구(黄河三角洲高效生态经济区) ② 일권: 성도도시군경제권(省会城市群经济圈) ③ 일대: 서부경제용기대(西部经济隆起带)를 의미함.

- 을 맞추어 「대기·수질·토양오염방지 액션플랜」을 추진하고 공업고체폐기물 및 위험폐기물에 의한 오염을 엄격히 통제할 계획임.
- 2016년에는 신에너지자동차의 대대적인 보급과 함께 공공 충전시설의 건설도 가속화하는 등 대기오염 방지에 주력할 예정이며, 2020년 대기오염농도(초미세먼지 PM 2.5)를 2015년에 비해 25% 낮출 계획임.
  - 허베이는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중점업종의 대기오염 관리를 강화할 방침임. 또한 「수자원 환경종합관리행동」을 추진하여 지하수의 과도한 개발을 종합 관리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녹색허베이행동」을 추진하여 천연림 보호, 경작지의 산림화, 타이항산(太行山) 녹화(绿化), 연해 방호림 조성 등 생태건설 공정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 2016년에는 중대 생태공정을 실시하여 지하수의 과도한 취수를 종합관리하고, 「국토녹화행동」과 연해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한 「남색해안(海湾)행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또한 순환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저탄소 배출 시범구를 조성할 방침임.
  - 산둥은 생산·생활의 녹색화를 우선 과제로 삼고, 중점영역 에너지 절약기술의 산업화와 고효율 절수기술 및 제품 보급을 적극 추진할 방침임. 또한 생태보호 및 복원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생태안전장벽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임.
  - 2016년에는 중점유역, 연안해역, 호수의 환경보호를 강화하고 삼림녹화율 27% 달성을 목표로 대규모 「국토녹화행동」을 실시할 계획임.

표 10. 환발해지역 13·5 건의문(3): 녹색정책

지역	목표	주요 과제	
베이징	생태문명 건설의 추진 가속화 및 생태환경의 질 개선	△ 환경오염 관리 역량 강화 △ 환경기능 및 생태공간 확대 △ 녹색·저탄소·순환경제발전	△ 생태문명 제도 체계 완비 △ 징진지 생태환경 협동관리 추진
텐진	녹색발전 촉진, 생태문명 건설 가속화	△ 녹색공간 조성 완비 △ 녹색장벽 구축	△ 저탄소·순환경제발전 △ 생태문명제도 체계 완비
허베이	녹색발전 견지, 사람과 자연의 화합·공생 추진	△ 대기오염 방지행동 추진 △ 녹색허베이행동 추진 △ 수자원 환경종합관리행동 추진	△ 산업생태화, 생태산업화 추진 △ 자연환경 보존 △ 생태문명제도 건설 가속화
산둥	‘생태(生态) 산둥’ 건설	△ 주체기능구 건설 가속화 △ 생산·생활의 녹색화 추진 △ 생태보호·재생 공정 실시	△ 환경관리 역량 강화 △ 생태문명제도 체계 완비

자료: 표 7과 동일.

■ [개방] 대외개방 확대가 공통적인 목표로, 베이징은 국제교류 중심지로서의 역할 강화, 텐진은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시험구 조성, 허베이는 글로벌 밸류체인(GVC)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산둥은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구와 산업협력단지의 건설 가속화에 역점을 둠.

- 베이징은 국제교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 및 국제 스포츠 행사 개최 능력을 제고하고, 주요 국제회의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문화, 과학기술, 스포츠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제교류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임.
- 이와 함께 ‘일대일로’ 전략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연선(沿线)국가와의 경제 협력 강화를 주요 업무로 제시하고 있음. 또한 서비스업 확대개방 종합시험구를 건설하여 서비스업 개방을 위한 기본 프레임을 구축할 예정임.
- 2016년에는 서비스업 확대개방 종합시험구를 건설하여 서비스업 체계를 완비하고 과학, 정보, 여행 등 서비스업의 가속

발전을 유도할 방침임.

- 텐진은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시험구 건설을 위한 제도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행정의 효율화, 투자 자유화, 무역 편리화, 금융 국제화를 추진할 계획임. 또한 '중국-몽골-러시아(中蒙俄)' 경제회랑의 동부 기점이자 해상실크로드의 거점으로서 '일대일로' 건설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 복합운송 교통회랑을 조성하고, '텐진-신장-유럽(津新欧)', '텐진-몽골-러시아(津蒙俄)'를 잇는 교통·물류 통로를 건설할 계획임.
- o 2016년에는 세계 일류의 자유무역시험구 건설을 위한 제도 혁신에 주안점을 두고 행정관리체계의 개혁 심화, 고효율·저비용의 투명한 서비스체계 조성을 통해 행정의 고효율화를 실현할 계획임.
- o 투자자유화를 위해 현대서비스업과 선진제조업 영역에서의 시장진입 및 해외 투자제한을 완화하고 외국인투자 감독체계를 완비할 방침임.
- 허베이는 전면적 개방 확대를 통한 수출을 촉진하고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강화할 계획임. 이를 위해 기업의 해외진출 종합서비스 플랫폼을 조성하고 철강, 시멘트, 장비제조 등 주요 산업에서의 해외진출을 추진할 방침임. 또한 '인터넷 플러스' 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무역의 추진,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전문화·산업화를 통해 대외 무역을 촉진할 계획임.
- 산둥은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구와 산업협력단지의 건설을 가속화하여 무역, 투자, 서비스, 산업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임. 아울러 전기전자, 첨단기술제품 수출 확대를 위해 품질을 제고하는 동시에 선진기술 및 주요 설비·부품의 수입도 적극 추진할 방침임.
- o 2016년에는 한·중 FTA를 기회요인으로 활용하여 무역, 투자, 금융, 관광, 교통 분야에서의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웨이하이(威海) 지방경제협력 시범구와 옌타이(烟台) 한·중 산업단지 건설을 가속화할 방침임.

표 11. 환발해지역 13·5 건의문(4): 개방정책

지역	목표	주요과제	
베이징	개혁개방의 전면 심화, 발전활력과 창조력 증강	△ 국제교류의 중심지 기능 강화	△ 전방위적인 개방구조 구축
텐진	개방발전 촉진, 개혁개방의 새로운 우위 확보	△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구 건설 △ 경제영역의 중점개혁 추진	△ 일대일로 건설에 적극 참여 △ 고도의 개방형경제로 발전
허베이	개방발전 견지, 개혁개방의 가속화	△ 개혁의 전면 심화를 통한 발전동력 강화	△ 개방 확대
산둥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우위 확보	△ 다원화된 개방구조의 최적화 △ 대외경제·대외무역 구조 최적화 △ 협력교류의 플랫폼 건설	△ 해외투자 수준 제고 △ 외국인투자의 질과 효익 제고

자료: 표 7과 동일.

■ [민생] 모든 지역이 공통적으로 민생 개선을 위한 교육 발전, 취업 촉진, 사회보장제도 완비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특히 베이징은 고용촉진 및 양로보장수준 제고를 강조하고 허베이와 산둥은 빈곤 퇴치를 강조함.

- 베이징은 고용촉진정책의 개선을 통해 고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와 농촌의 공공고용서비스체계를 완비하여 농촌노동력의 취업을 확대하고, 대학생의 창업·취업 지원 및 빈곤계층을 위한 기능교육을 실시할 방침임.
- o 2016년에는 취업 촉진을 위한 평생직업훈련제도의 구축, 청년 창업 및 고용 창출을 위한 대학졸업자의 창업지원서비스 등을 강화할 방침임.
- 텐진은 교육의 현대화와 기초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도시와 농촌의 의무교육 일체화 및 균형발전을 추진할 방침임.

또한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소득분배제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임금결정 및 최저임금인상 시스템을 완비할 계획임.

- 2016년 소득분배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최저임금 표준의 조정, 기관 및 사업단위의 임금·보조금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이와 함께 향후 5년간 240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고용정책을 적극 시행할 방침임.
- 허베이는 빈민구제·빈곤퇴치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옌산(燕山)-타이항산(太行山)과 헤이룽장(黑龙江) 지역의 극빈지역과 환(環)수도 빈곤퇴치시범구를 중심으로 고용촉진, 교육지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임.
- 산둥에서는 효과적인 빈곤 퇴치를 위해 빈곤구체제제를 시행하여 시(市) 또는 현(縣) 단위로 빈민구제 및 빈곤퇴치 업무를 진행할 계획임. 아울러 의료위생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는 기본의료위생체제를 확립할 방침임.

표 12. 환발해지역 13·5 건의문(5): 민생정책

지역	목표	주요과제
베이징	사회관리체제 혁신, 민생개선 및 보장	△ 공공서비스 공급수준 제고 △ 교육발전의 질 제고 △ 취업 촉진 △ 공평하고 지속적인 사회보장체계 수립 △ 건강도시 건설 추진
톈진	공동발전 촉진, 민생개선 및 보장 강화	△ 교육의 현대화 실현 △ 고용의 질적 수준 개선 △ 도시와 농촌의 수입 증대 △ 사회보장제도 완비 △ 시민건강수준 제고 △ 인구 종합서비스 관리수준 제고 △ 사회 관리의 강화와 혁신
허베이	공동발전 견지, 민생보장수준 제고 가속화	△ 빈민구제·빈곤퇴치 프로그램 실시 △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 제고 △ 창업·취업 지원 확대 △ 사회보장제도 개혁 및 확대 △ 교육개혁 심화 △ 건강한 허베이(健康河北) 프로젝트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 안심공정 실시
산둥	문명화합의 신국면 개척	△ 빈곤퇴치 목표의 조기 달성 △ 교육현대화 추진 △ 창업장려, 고용추진 △ 인민건강 수준 제고 △ 사회보장체계 완비 △ 소득분배구조 최적화 △ 인구 균형발전 추진

자료: 표 7과 동일.

### 3. 지역별 13차 5개년 계획의 핵심정책

#### 가. 베이징: 세계 일류 수준의 과학기술혁신 중심지 건설

■ 베이징은 중국 내에서 인적자원이 가장 풍부하고 과학기술 역량이 집적된 지역으로, 이러한 혁신환경이 가장 우수한 지역우위를 토대로 13·5 계획기간 세계 일류 수준의 과학기술혁신 중심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제시함.

- 베이징은 13·5 계획기간 비(非)수도 기능과 제조업 생산기능을 인근 도시로 이전·분산시킴으로써 대도시의 병폐를 완화하고 도시기능의 전환과 특화를 추진하는 경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임.
- 정치·문화·국제교류·과학기술혁신에 도시기능을 집중시키고, 3차 산업과 IT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식경제와 친환경 최첨단 산업 중심의 국제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임.
- 베이징은 향후 수도의 핵심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주력하고, 산업 분포와 발전이 도시의 전략적 기능에 부합하도록 과학기술을 핵심으로 한 혁신주도형 발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산업구조를 금융·문화·관광·컨벤션·부동산·물류·사업서비스 등의 3차 산업, 소프트웨어·R&D·IT서비스·이동통신·집적회로·광전자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첨단기술산업, 자동차·장비제조·석유화학·신소재·의약 등의 첨단제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함.
  - 혁신과 첨단산업의 발전을 통해 성장동력을 유지하며, 이를 위해 산업 내부구조의 고도화로 고부가가치·정밀·첨단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형성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갖춘 과학기술혁신 중심지로 발전시킬 계획임.
- 베이징의 과학기술혁신 중심지 건설에 관한 계획은 12·5 계획기간에도 추진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토대로 13·5 계획기간에는 세계 일류 수준의 과학기술혁신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12·5 계획기간 베이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과 R&D 성과의 산업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혁과 함께 인재관리 모델 금융지원 등 혁신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하였음.
  - 중관촌(中关村)을 국가 자주혁신시범구로 지정하고 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인재·자본·기술 등 혁신요소가 집약된 중국 내 대표적인 혁신지역으로 발전시킴.
  - 자주혁신시범구 발전을 위해 혁신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우대정책과 함께 △ 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처분권과 수익권 개혁 △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정책 △ 주식제기업으로의 발전 △ R&D 경비 관리제도 개혁 △ 첨단기술기업 인증 △ 전국적인 장외거래시장 설립 등 다양한 시범정책을 시행함.
  - 500억 위안의 재정을 투입하여 과학기술혁신에 부합하는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혁신과 금융혁신 간 긴밀한 연계를 실현함으로써 중관촌 자주혁신시범구를 국제적 영향력을 지닌 과학기술혁신 중심지와 금융혁신 중심지로 육성함.<sup>8)</sup>

표 13. 베이징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주요 지표(2014년)

구 분	주요 실적	전년대비 증가율
과학기술 및 정보 서비스업 부가가치	3,724.6억 위안	11.4%
중관촌 자주혁신시범구 총매출액	3.57조 위안	17.2%
국가급 첨단기술기업	1만개 이상 (전국 1위)	-
기술계약액 (GRDP 대비 기술거래 부가가치 비중)	3,136억 위안 (중국 전체의 36.6%) (9.46%)	10.0%
특허 출원수 및 등록수 (그 중 발명특허 출원수 및 등록수)	13.81만 건, 7.47만 건 (7.81만 건, 2.32만 건)	12.0%, 19.1% (15.7%, 12.3%)
인구 1만 명당 발명특허 보유량	48.1건 (전국 1위)	-
R&D 투자	1,287억 위안(GRDP의 6.0%) (전국 1위)	8.6%
R&D 종사자	35.3만 명	5.7%
과학기술 진보 수준	전국 1위 (과학기술부)	-

자료: 「把握新定位, 适应新常态, 为全国科技创新中心建设作出新贡献」(2015. 2. 28), 《新华网》.

- 기초 및 응용 분야에서의 기술혁신 성과를 기반으로 신흥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였으며, 300개 이상의 중점기업을 선정하여 정책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혁신형 기업의 규모화 발전을 추진함.

8) 「关于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建设国家科技金融创新中心的意见」(2012. 8. 3),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 도시환경, 에너지, 신소재 등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차세대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슈퍼컴퓨터, 클라우드 컴퓨팅, 신에너지 자동차, 항공우주, 인공위성 응용 등 핵심 응용기술분야에서의 기술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능력을 제고함.
- 지난 5년간 과학기술혁신 중심지 건설 및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구조의 첨단화가 더욱 뚜렷해졌으며,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수도(首都) 과학기술혁신 발전지수는 2010년의 79.77에서 2014년의 88.72로 8.95p 상승<sup>9)</sup>
- 금융, IT, 과학기술서비스 등 3대 우위산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공헌율은 70%를 초과하였고, 3차 산업의 비중은 75%에서 79%로 상승함.
- 글로벌기업의 R&D 기구의 베이징 진출과 정보화기술의 발전을 계기로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 중심의 고급기술서비스업과 첨단기술 제조업이 집중 육성되었으며, 특히 IT·전자산업 등이 서비스업과 결합하면서 고부가가치산업이 빠르게 발전함.

■ 베이징은 13·5 계획기간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GRDP 대비 R&D 투자 비중을 6% 이상 유지함으로써 고부가가치화·정밀화·첨단화된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갖춘 과학기술혁신 중심지로 발전시킬 계획임.

- 정보통신·3D 프린팅·전기자동차·나노기술·빅데이터·유전공학 등 전략적 신흥산업의 육성 및 규모화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담은 '베이징 기술혁신 액션플랜(北京技术创新行动计划)'을 발표하고 경제구조 전환을 촉진할 계획임.<sup>10)</sup>
- 베이징은 「수도 과학기술 서비스업 발전 가속화에 관한 실시의견(关于加快首都科技服务业发展的实施意见)」을 발표하고 수도기능에 적합한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지원, 창업지원, 경쟁력 강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육성, 시장 확대 등의 지원사업을 강화할 계획임.<sup>11)</sup>
- 혁신도시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고급인재 양성과 유치를 목표로 한 「수도 중장기 인재발전 계획강요」를 발표하고, 2020년까지 △ 노동인구 중 전문대 이상 학력자의 비중 42% 이상 △ 경제성장에 대한 인적자본의 공헌율 45% 이상 △ 기술인력 중 첨단기술 인력의 비중 30% 이상 등의 목표를 실현하되, 고급인재들의 정착을 위해 호적(户口)을 이전할 수 있도록 호적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하고 있음.<sup>12)</sup>
- 과거 R&D 활동에 중점을 둔 지원방식에서 R&D 활동과 시장을 제공하는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자금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시장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R&D 성과의 산업화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자주혁신제품에 대한 정부구매제도를 완비하고, 향후 5년간 정부구매액이 300억 위안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기업에게 일정 규모의 시장을 제공하도록 함.
- 보조금 지급이나 대출이자보조 등 기존의 직접보조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혁신투자자금·혁신투자유도자금·지분투자자금 등을 활용하는 시장화된 지원방식으로 전환하여 정부투자자금의 이용효율을 제고함.
- 과학기술혁신 중심지 건설 촉진을 위한 2016년 중점 사업으로 △ 중관촌 자주혁신시범구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개

9) 수도 과학기술 발전지수는 수도권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및 발전 상황을 매년 측정해 새로운 발전 움직임을 추적하고 수도 과학기술 혁신발전 변화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취지로 개발되었으며, 수도 과학기술 발전전략연구원(首都科技发展战略研究院)과 베이징시 과학기술위원회(北京市科学技术委员会)가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음. 「首都科技创新发展指数五年连增, 人均GDP达1.7万美元」(2016. 2. 25), 『中国新闻网』.

10) 「北京技术创新行动计划(2014-2017年)」(2014. 5. 13), 北京市人民政府.

11) 2020년까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매출액과 기술계약액을 각각 1조 5,000억 위안과 5,000억 위안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关于加快首都科技服务业发展的实施意见」(2015. 5. 12), 北京市人民政府.

12) 「首都中长期人才发展规划纲要(2010—2020年)」(2010. 8. 3), 北京市人民政府.

혁명책의 실시 △ 자주혁신시범구의 발전기제 완비 및 새로운 관리운영모델의 모색 △ 기업의 R&D 투자 장려정책 △ 혁신분야에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강화 등을 제시함.

## 나. 텐진: 산업의 융복합 및 고도화 추진

- 텐진은 징진지 협동발전, 자유무역시험구, 일대일로, 빈하이신구 등 중앙정부의 주요 국가전략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최근 고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임. 그러나 혁신능력 부족과 산업고도화 부진 등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함.
  - 징진지 역내 상호 조화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역간 기능의 전략적 분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베이징과의 공간 및 산업구조 조정, 선진제조업에 특화된 산업발전을 강조함.
  - 과학기술분야의 발전을 중심으로 한 혁신전략을 추진하며, 이를 바탕으로 신산업·신업태·신비즈니스모델을 적극 육성하고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 산업발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업종별로는 항공우주·석유화학·장비제조·정보통신·의약·신에너지·신소재 등 2차 산업 육성과 함께 특히 공업화와 정보화를 접목한 산업의 융복합 발전을 추진하며, 금융·해운물류·기술정보서비스 등 2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텐진은 13·5 계획기간 혁신주도형 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산업의 융복합과 고도화를 추진하며, 선진제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기지 건설, 현대적 산업체계 구축, 현대서비스업의 발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함.
  - 혁신주도형 발전을 위해 국가 자주혁신시범구와 자유무역구의 설립 및 상호 연계발전, 혁신플랫폼의 건설, '대중창업 만민혁신(大众创业, 万众创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혁신플랫폼 내에 국가급 과학연구기관과 첨단산업 R&D기구를 집적시키고 중점실험실·생산력촉진센터·과학기술인큐베이터를 유치하는 등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기초 및 첨단기술의 연구와 응용능력을 제고하고 스마트제조·신약제조 등 과학기술혁신 시범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실시함.
    -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체계를 구축하고, 빈하이신구 내에 창업·혁신 시범구를 조성하여 대중창업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함.
    -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확대, 엔젤투자·창업투자 등 자금조달시장의 발전, 과학기술기업의 비상장주 유통 및 상장, 기업간 M&A 및 구조조정 등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체계의 구축을 촉진함.
  - 선진제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제조 2025'와 산업 발전의 연계, 제조업의 분업 및 협력체계 유도, 선진제조업 관련 연구개발기지 건설 등을 추진함.
    - 세부 업종별로는 △ 장비제조·차세대 정보기술·우주항공·바이오의약·신에너지·신소재·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등 첨단 산업의 육성 △ 로봇·3D프린터설비·신에너지자동차 등 신홍산업의 발전 △ 석유화학·제련·방직 등 전통산업의 개조 및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산업구조 최적화와 고도화, 합리적인 산업분포, 지역우위에 기반한 산업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함.
    - 또한 제조업의 첨단화를 위해 스마트제조로의 전환, 스마트 공장 및 디지털 작업장 건설, 클라우드제조 등 신형 제조모델의 발전을 장려할 계획임.
  - '중국제조 2025', 공업화와 정보화의 융합 촉진, 인터넷 플러스와 제조업의 융합 촉진 등을 통해 첨단장비, 차세대 정보기

술, 항공우주,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자동차, 신소재, 바이오의약 등 10대 선진제조업 클러스터의 규모화 발전을 추진함.

■ 산업의 융복합 및 고도화 발전을 위해 향후 4대 신흥 해양산업 육성, 제조업과 IT기술 융합을 통한 스마트제조 강화, 국가 자주혁신시범구 조성 등에 주력할 계획임.

- 텐진은 해양경제 발전을 위해 해양경제 과학발전시범구(海洋经济科学发展示范区)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며, △ 해수자원 종합이용 △ 해양장비산업 △ 해양서비스업 △ 해양 바이오의약산업을 4대 해양산업으로 선정하여 각 산업별로 별도의 발전계획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텐진은 2015년에 「해수자원 종합이용 발전계획(海水资源综合利用循环经济发展专项规划)」, 「해양공정장비산업 발전계획(海洋工程装备产业发展专项规划)」, 「해양서비스업 발전계획(海洋服务业发展专项规划)」, 「해양바이오의약산업 발전계획(海洋生物医药产业发展专项规划)」을 각각 발표하고 각 분야에서의 주요 발전목표를 제시함.
- 제조업의 업그레이드와 스마트제조 강화를 위해 2015년 「텐진시 스마트제조 중요 과학기술전문기금항목(天津市智慧制造重大科技专项)」을 발표하고 2017년까지 과학기술분야에 1억 위안을 투입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sup>13)</sup>
  - 로봇산업, 스마트제조 장비산업, 제조업 관련 핵심부품 등 주요 산업에서의 R&D를 강화하고 기계화·자동화를 통한 노동력 대체와 제조업의 정보화를 통해 장비산업·의약산업·식품산업에서의 성공사례를 창출할 계획임.
  - 제조업과 IT 융합을 통해 2017년까지 5~10개의 스마트제조 종합시범공장 건설, 100개의 노동력 대체 시범기업 건설, 10개 이상의 스마트제조 클러스터 조성, 장비제조업에서의 스마트제조 생산규모 1,000억 위안 이상 달성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
- 2015년 텐진시는 혁신능력의 제고와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텐진하이테크개발구에 자주혁신시범구(自主创新示范区)를 설립하고 향후 4대 첨단산업 밸류체인을 구축함으로써 산업규모를 확대하고 특색산업의 집적효과를 제고할 방침임.<sup>14)</sup>
  - 시범구 내에 생산규모 1,000억 위안 이상의 IT산업체인, 스마트장비제조산업체인, 신에너지산업체인, 신에너지자동차산업체인 등 4대 첨단산업 밸류체인을 구축할 계획임.
  - 향후 4대 첨단산업 가치체인을 기반으로 2020년까지 하이테크개발구의 총매출액 6조 위안 이상 달성을 목표로 제시함. 또한 4대 첨단산업 외에 문화콘텐츠, 헬스산업에서도 3년 내에 800~1,000억 위안의 산업규모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산업화와 정보화의 융합발전이 추진되면서 철강, 제약, 의류 등 전통산업에서의 전자상거래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텐진시는 전통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정보화 발전과 전자상거래 도입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음.<sup>15)</sup>
  - 텐진시 전자상거래 거래액(2014년 기준)은 전년대비 66.4% 증가한 5,234억 위안을 기록하였으며,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따른 수출은 25만 6,000건으로 전년대비 31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온라인 교역액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텐진시는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 이후에만 「텐진시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3개년 액션플랜(天津市推进电子商务发展三年行动计划)」, 「정보소비 증진으로 내수를 촉진하는 것에 관한 실시의견(关于促进我市信息消费扩大内需的实施意见)」, 「저명 전자상거래 기업 육성·유치 및 전자상거래 응용·보급을 위한 3개년 행동방안(引进培育知名电商企业和普及深化电子商务应用三年行动方案)」, 「텐진시 전자상거래의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促进全市电子商务健康发展的若干意见)」 등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표함.

13) 「天津启动十个科技重大专项与工程」(2015. 9. 16), 『新华网』.

14) 「天津国家自主创新示范区发展规划纲要(2015—2020年)」(2016. 1. 5), 科学技术部(1. 5).

15) 「天津出台推进电子商务发展三年行动计划, 2016年将成中国北方电子商务中心城市」(2015. 5. 6), 『天津日报』.

표 14. 텐진시 산업 고도화 및 융복합 추진 계획

구분	주요 내용
산업화와 정보화의 융합정책	· 전통산업과 IT기술의 융합 발전으로 철강, 제약, 의류 등 전통산업에서의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 ·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해 '텐진시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3개년 액션플랜', '정보소비 증진으로 내수를 촉진하는 것에 관한 실시의견', '저명 전자상거래 기업 육성·유치 및 전자상거래 응용·보급을 위한 3개년 행동방안', '텐진시 전자상거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의견' 등의 지원정책을 발표
신흥 해양산업 육성	· 해양경제 과학발전시범구를 조성하여 해양장비산업·해양서비스업·해양바이오의약산업의 발전 촉진 · 해양장비산업: 해양장비산업의 고도화 발전, 해양장비 제조 및 R&D 기지 조성, 4대 해양장비 혁신 및 서비스 지원플랫폼 구축, 2020년까지 연평균성장률 10% 달성 · 해양서비스업: 해운물류, 해안관광 등 전통 해양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해양 관련 금융서비스, 해양과 학기술서비스 등의 신흥 해양서비스업 육성, 2020년까지 해양서비스업의 산업부가가치 3,000억 위안 달성 · 해양바이오의약산업: 해양바이오소재, 해양의약, 해양바이오농업, 해양 바이오에너지산업 집중 육성, 2020년까지 해양 바이오의약산업 생산액 200억 위안 달성
제조업과 IT 융합	· 제조업 업그레이드와 스마트제조 추진을 위해 2017년까지 1억 위안 투입 · 스마트제조 장비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화 수준 제고, 제조업의 '제조+서비스' 모델 발전 추진 · 핵심 제조기술의 제고를 위해 관련 분야의 기초부품 중점개발 추진 · 공업용 로봇분야에서의 설계·제조·응용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추진 · 장비·식품·의약 분야에서의 기업 응용 스마트화와 정보화 추진을 통해 성공사례 창출 · 장비제조업 내 스마트제조 생산규모 1,000억 위안 이상 달성

자료: 중국 언론보도자료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 다. 허베이: 경제구조 전환 가속화

■ 허베이성은 12·5 계획기간 2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다소 개선되었으나 서비스업의 발전이 더딘 상황이며, 특히 제조업 중에서도 철강산업(26.0%)과 장비제조업(23.7%)의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특정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sup>16)</sup>

- 2011년과 2015년 허베이성의 산업구조를 비교해보면 1차 산업의 비중이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2차 산업의 비중은 53.5%에서 48.3%로 축소되었고, 반면에 3차 산업의 비중은 34.6%에서 40.2%로 확대됨. 그러나 여전히 2차 산업의 비중이 높고, 특정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됨.<sup>17)</sup>
- 징진지 협동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산업 전환·업그레이드 시범구와 현대비즈니스물류기지를 건설하고, 징진지 역내 산업구조 조정의 방향에 부합하는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신흥산업 집적 프로젝트 등을 추진함으로써 선진제조업·현대서비스업·신흥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함.
  -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특히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전략에 적극 참여하여 전통산업 개조 및 업그레이드, 신산업과 신업태의 성장을 촉진할 것을 강조함.
  -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제조업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징진지 협동발전계획에 따라 베이징과 텐진에서 이전해오는 산업을 적극 수용한다는 계획임.

■ 산업구조 조정과 경제구조 개선을 위해 허베이성은 전통산업 개조, 산업이전 적극 수용, 전략적 신흥산업의 규모화 발전

16) 「河北省, 2015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2016. 2. 25), 河北省统计局.

17) 「河北: 产业结构调整取得明显成效」(2015. 11. 11), 『中国经济网』.

추진, 현대서비스업의 육성 및 발전 등 다양한 계획을 제시함.

- 환경오염산업과 과잉생산설비산업을 중심으로 기업파산기제를 강화함으로써 생산설비와 생산기술이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자 하며, 퇴출된 기업의 전략적 신흥산업·현대서비스업·현대농업 부문에서의 2차 창업을 장려함.
- 도심지역 입지에 부적합한 철강·화학공업·전력·의약 등 기업을 도심 밖으로 이전시키되, 비교우위를 보유한 업종과 기업의 경우 글로벌 밸류체인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산업의 발전과 스마트제조 전환을 위한 '인터넷+제조업', '인터넷+산업집적' 발전계획을 제정하고, 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간 전략적 협력·인수 합병을 적극 지원함.
- 철강 등 중점산업 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독자브랜드와 핵심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집단의 규모화 발전을 촉진함.
- 전통산업의 획기적인 융합발전(수평적 계열화)을 촉진하고, 자원·자본·기술 등 생산요소의 집약적 이용을 촉진함.
- 시장수요와 기술발전수준을 고려하여 선진장비제조·전자정보·바이오의약·신에너지·신소재·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신에너지자동차 등 전략적 신흥산업의 규모화 발전과 선도산업으로의 육성을 촉진함.
- 선도산업군 구축과 산업체인 연장 및 규모화 발전을 위해 신흥산업의 집적발전을 추진하며, 선진장비제조산업 클러스터, 차세대 정보산업클러스터, 바이오의약산업클러스터, 신에너지 및 청정에너지산업클러스터, 신소재산업클러스터,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산업클러스터를 조성·발전시킴.
-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스마트물류·정보서비스·금융서비스·과학기술서비스·전자상거래·산업디자인·문화·관광레저 등 중점육성산업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생산자 서비스업과 현대물류업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음.
- 현대물류업의 발전을 위해 △ 유통체계와 구조의 개선 △ 베이징 내 도매시장물류기능의 적극 수용 △ 대형 현대물류단지 조성 △ 스자좡·탕산 등을 국가급 물류허브도시로 조성 △ 스신어우(石新欧; 허베이성 스자좡시와 신장자치구 및 유럽을 연결하는 노선) 및 지멍러(冀蒙俄; 허베이성과 몽골 및 러시아를 연결하는 노선) 국제화물운송 정기편 개통 등을 추진함.
- 문화 관련 산업의 융합을 추진하고, 영상서비스·애니메이션게임·디지털문화·테마공원 등의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는 등 문화관광산업의 지주산업으로의 발전을 촉진함.

■ 특히 장비제조업과 바이오의약산업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며, 베이징과 톈진 소재 혁신기업 생산시설의 허베이성 이전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 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을 가속화하고 있음.

- 허베이성은 장비제조업 발전을 위해 「허베이성 장비제조업 발전촉진 실시방안(促进河北省装备制造业加快发展实施方案)」을 발표하고 △ 자동차품질 제고 및 생산 확대 △ 교통운수장비 개발 △ 에너지장비 업그레이드 △ 건설 및 특수장비 브랜드 육성 △ 기초장비 생산능력 강화 등 5대 중점산업을 통해 첨단제조업으로 변신을 도모하고 있음.<sup>18)</sup>
- 2017년까지 장비제조업 매출액 1조 5,200억 위안 달성과 매출액 100억 위안 이상 기업 10곳 육성을 추진하며, 5대 중점분야의 매출액 비중을 86%까지 확대함.
- 장비제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까지 성(省)급 이상의 기업기술센터·공정기술연구센터·공정실험실 설립 촉진
- 스마트제조 수준의 제고와 3D프린터, 산업용 로봇 등 첨단장비산업의 발전으로 2017년까지 근로자 1만 명당 로봇 사용비율을 50%로 제고할 방침임.
- 허베이성은 특히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강조하고 장비제조업 5개 중점분야 중 자동차의 품질 제고와 생산량 확

18) 「《促进河北省装备制造业加快发展实施方案》发布」(2015. 3. 17), 『中国证券报』.

대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

- 바오딩(保定)시에 창청자동차(长城汽车) 생산기지를 건설하여 50만 대 규모의 완성차 및 관련 부품단지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신기술센터와 테스트센터, 파일럿제작센터, 차량디자인센터, 엔진개발센터 등을 함께 건설하여 자동차산업도시로의 발전을 추진할 계획임.
- 덩저우(定州)시에는 창안자동차(长安汽车)의 에너지절약형·친환경자동차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그밖에 창청자동차, 상하이 자동차탕산버스(上汽唐山客车), 바오딩창안버스(保定长安客车)의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자동차기업의 유치를 통해 신에너지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주력할 계획임.
- 허베이성은 2015년 「바이오의약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실시방안(促进生物医药产业加快发展的实施方案)」을 발표하고 바이오의약산업 분야의 5대 중점추진사업과 발전목표를 제시하는 등 바이오의약산업의 발전을 주요 산업전략으로 채택함.<sup>19)</sup>
- 5대 중점추진사업으로 △ 화학약품 품질 제고 △ 바이오 기술수준 업그레이드 △ 의료기기산업 매출액 증대 △ 스자좡(石家庄) 국가 바이오산업기지 및 클러스터 발전시범구 조성 △ 의약품 물류유통 개선을 제시함.
- 바이오의약산업 매출액을 2015년 950억 위안에서 2017년까지 1,250억 위안으로 확대하며, 일부 선도기업들의 규모화 발전을 지원하여 매출액 10억 위안 이상인 기업을 10개로 확대하고자 함.
- 베이징의 바이오의약산업 이전을 적극 수용·발전시키기 위해 창저우(沧州)시 보하이신구(渤海新区)를 베이징의 바이오의약산업 이전단지화 R&D 성과의 산업화 전환을 실현하는 녹색발전시범단지로 조성할 계획임.
- 정진지 협동발전전략의 추진에 따른 베이징과 톈진의 제조업 생산시설의 허베이성 이전을 적극 수용하고자 지역 내 과학기술산업단지, 창업인큐베이터센터, 과학기술금융 플랫폼, 과학기술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혁신·창업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에 있음.

## 라. 산둥: 대외개방·국제협력 정책의 다원화

- 산둥성은 대외개방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발전한 대표적인 연해지역 중의 하나로, 13·5 계획기간에도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다원화된 국제협력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계획임.
- 산둥성정부는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방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간소화·법제화·국제화된 개방환경을 조성할 방침임.
- 개방정책과 국제협력을 위한 플랫폼으로 칭다오 중더생태원(中德生态园), 르자오(日照) 국제해양도시(国际海洋城), 웨이팡 빈하이산업원(滨海产业园) 등 중외협력단지(中外合作园区)를 설립함.
- 한·중, 중·호주 FTA 체결을 기회요인으로 삼아 대외개방과 국제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개혁 촉진·산업고도화·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13·5 계획에서는 특히 한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강조함.
- 2014년 산둥성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총 152.0억 달러였으며, 그 중 한국의 대산둥성 투자(15.3억 달러)는 홍콩(76.3억 달러)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였음. 같은 해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에서 산둥성은 투자건수 1위(21.3%), 투자금액 2위(12.7%)를 차지함.
- 2015년 산둥성의 총수출(1,488억 달러) 중 대한민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1%(151억 달러), 총수입(1,314억 달러) 중 대한민국 수입은 14.7%(193억 달러)를 기록, 한국은 산둥성의 3대 수출상대국이자 최대 수입상대국이었음.

19) 「关于印发促进生物医药产业加快发展的实施方案的通知」(2015. 4. 15), 河北省发展和改革委员会.

- 한·중 FTA 협정문에서도 한국과 산둥성간의 긴밀한 교류협력 관계를 반영하여 한·중 산업단지의 설립·운영·개발에 관한 협력을 강화할 것(제17.26조)과<sup>20)</sup> 지방경제협력 시범지역으로 웨이하이(威海)를 지정(제17.25조)하는 등 한·중 경제교류협력의 새로운 발전과 진전을 위해 산둥성의 역할을 강조함.

■ 13·5 계획기간 산둥성은 동부 연해지역과 내륙의 일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중·일 경제협력의 전략지역으로 조성함으로써 육상과 해상, 국내와 해외가 상호 연계되는 국가 대외개방 대동로 건설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 또한 다자간 혹은 양자간 무역과 직접투자에서 새로운 국제협력과 전방위적 개방을 추진할 것을 제시함.

- 기술·브랜드·품질·서비스를 아우르는 종합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외무역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함.
  - 수출품의 품질과 혁신기술을 제고하여 기계·전자제품·첨단기술제품의 수출을 확대하고, 독자적인 수출브랜드와 해외판매망 구축을 촉진하는 동시에, 선진기술·핵심설비·핵심부품의 수입을 장려하는 적극적인 수입촉진전략을 실시함.
  - 서비스 아웃소싱의 발전과 함께 국경간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무역방식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역특색의 전문화된 대외무역 종합서비스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모화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서비스무역의 규모를 확대함.
- 자본·기술·지식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외자 이용의 효율성을 전면 제고함.
  - 세계 500대 기업 또는 선도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의 관리모형을 추진하고, 서비스업·첨단제조업·현대농업 등의 영역으로 외자가 중점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함.
  - 외자이용방식을 고도화하여 그린필드형 투자 외에 지분투자·해외 M&A·채권유자·리스크투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외자 이용을 장려하고, 국유기업 개혁과 인프라 건설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참여를 촉진함.
- 경쟁력을 갖춘 국내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 인프라투자와 에너지·자원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며, 해외경제무역협력구 설립·발전을 가속화함으로써 비교우위산업의 국제협력과 글로벌 밸류체인(GVC) 진입·협력을 촉진함.
- 국제협력과 대외개방을 위한 플랫폼 건설을 강화하여 투자·무역의 편리화,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 국제협력의 제도적 보장 등을 강화함.
  - 한·중 지방경제협력 시범구와 산업단지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무역·투자·서비스·산업협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도개혁을 이루고, 이러한 성공 경험을 토대로 한·중·일 지방경제협력시범구와 산둥성 자유무역시범구 건설을 촉진함.
  -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전자상거래단지 내 국경간 전자상거래 공공서비스 플랫폼 건립을 장려함.

■ 산둥성의 13·5 계획에서는 전방위적이고 다원화된 대외개방과 국제협력 정책의 추진을 천명하고 있으며, 특히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지방경제협력 시범구와 산업단지 건설 등 한·산둥성 간 경제교류협력의 심화를 강조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산둥성 내 각 지역에서도 한국과의 활발한 경제협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웨이하이시(威海市)는 인천과 함께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도시로 관광, 상품교역의 집산지 건설, 국경간 전자상거래, 의료·성형, 금융, 헬스·실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방경제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함.<sup>21)</sup>
  - 웨이하이시는 한·중 현대서비스 산업단지, 한·중 종합보세물류단지, 한·중 해양 첨단기술협력단지, 한·중 의류기기산업단지 등을 건설하고 한국기업 유치와 경제협력을 확대·강화할 계획임.

20) 2015년 6월 한·중 FTA가 체결된 이후 2015년 11월에 개최된 한·중 산업협력단지 차관급 협의회에서 한국은 새만금을 한·중 산업단지로 운영기로 하였으며, 중국은 산둥성 옌타이, 장쑤성 옌칭, 광둥성 등 세 곳을 중한 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함.

21) 『山东威海加速对韩合作 成中韩交流门廊』(2015. 9. 24), 『中国新闻网』; 『威海开通全国首个中韩海运跨境电子商务通道』(2015. 3. 3), 『威海网』.

표 15. 산둥성 지역별 대한민국 경제협력 주요 내용

지역	주요 내용
엔타이 (烟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엔타이 중한 산업단지 건설을 양국간 경제협력의 선도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함.</li> <li>· 향후 바이오기술, 첨단장비제조업, 신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해양첨단기술 등 신중공업과 물류, 컨벤션, 금융·보험 등 서비스업에서 한국과의 협력 강화</li> <li>· [물류] 엔타이시 보하이페이와 엔타이항 그룹은 한국의 해상운송기업 6개사와 협력하여 엔타이보하이국제페리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엔타이항과 평택항 간 열차페리노선 개통. 향후 전자상거래 물류 활성화 도모</li> <li>· [금융] 엔타이시에 기진출한 한국계 은행과 향후 위안화 결제, 상장기업 용자 등 분야에서 협력 강화 예정</li> <li>· [스마트시티] 인친 송도신도시 발전모델 벤치마킹</li> <li>· [전자상거래]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발전시켜 양국 중소기업들의 상대국 시장개척을 위한 기회 제공</li> </ul>
웨이하이 (威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상거래] 2015년 2월 한·중 해운 전자상거래업무 개시</li> <li>· [지방정부간 협력] 인천시와 한·중 FTA 지역경제협력 강화. 관광, 국경간 전자상거래, 의료·성형, 금융, 실버, 산업단지 건설 등의 분야에서 협력방안 모색</li> <li>· [물류] 한국 수출품의 중국 내 배송센터를 설치하고 한국 상품의 집산지 기능 강화. 인천항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통관의 편의성 제고</li> </ul>
허저 (菏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둥성 동부지역에 위치한 외자기업 중 환경보호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집약형 산업의 이전을 적극 수용</li> <li>· 외자기업 유치 활성화를 통해 홍콩, 대만, 한국, 일본, 미국, 호주 등과 경제협력 강화</li> </ul>
칭다오 (青岛)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 FTA 기회를 통한 칭다오의 대한민국 개방협력 강화에 관한 액션플랜’을 발표하고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17가지 세부 조치를 발표</li> <li>· [제조업 협력] 자동차, 정보통신, 정밀화학 등 첨단산업에서의 협력 강화</li> <li>· [금융 협력] 한국 원화의 직접결제 추진. 한국의 은행·보험·재테크·금융컨설팅·사모펀드 등과 같은 기관의 칭다오 진출 장려. 칭다오기업의 한국 내 상장 장려</li> <li>· [서비스업 협력] 헬스·의료, 관광, 영화,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도시계획, 제3자 검사, 자동차서비스, 중개서비스 등 10대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강화. 서해안 신구의 완다영화기지(万达影视基地)를 기반으로 한국 영화산업과 협력 강화, 한국의 첨단헬스의료기술 도입을 통해 서해안 한중 헬스의료협력기지 조성</li> <li>· [한·중 협력단지 조성] 한·중 복합신도시(复合新城) 조성, 한·중 혁신산업단지 조성, 한·중 전자상거래단지 설립, 보세구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간 협력 추진, 한·산둥성 해외투자혁신정책시험구(鲁韩跨境投资创新政策试验区) 조성</li> <li>· [소비재수입 확대] 한국의 유제품, 화장품, 의류 및 액세서리 등 상품의 무역 간소화 추진, 한·중 수출입 인증업체(AEO) 상호인증, 신속통관, 화물검사 간소화 등 추진</li> <li>· [72시간 중간체류 무비자정책 시행] 국가차원의 출입국 우대정책 시행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비즈니스, 전시컨벤션, 관광 등을 목적으로 칭다오에 방문하는 한국인에게 출입국 편의 제공</li> </ul>
지난 (济南)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한·중·일 산업협력 지난 선행시범구 계획 및 건설에 관한 실시방안(关于计划建设中日韩产业合作济南先行示范区实施方案)’을 발표</li> <li>· 동 ‘방안’에 의거, 지난 신소재산업단지(济南新材料产业园区)를 거점으로 한·중 첨단산업융합단지(中韩尖端产业融合园)를 조성하고 한국의 첨단기술기업 유치</li> <li>· [유치산업] 한국이 세계적인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신소재, 전자기술, 정보기술, 첨단장비제조업 등 분야의 강소기업 150~200개사 유치에 주력</li> <li>· [한국과의 협력] 대덕개발특구 기업협회, 포항 한·중 부품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와 전략적 협력 체결</li> </ul>

자료: 중국 언론보도자료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중요시하고 중국 내 최초로 한·중 해운 전자상거래업무를 시작함. 특히 신속한 통관을 위해 사전 등록된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이 인보이스로 세관 통관 후 세관신고서는 추후 정기 취합하여 일괄 신고하는 ‘인보이스 통관, 일괄 신고’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통관비용 절감과 통관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엔타이시(烟台市)는 2015년 4월 「엔타이 한·중 산업단지 건설추진에 관한 업무방안(关于推进烟台中韩产业园建设的工作方案)」을 발표하고, 한·중 산업단지 건설을 양국 경제협력을 선도하는 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함.<sup>22)</sup>

22) 「山东烟台市扎实推进烟台中韩产业园建设」(2015. 4. 30), 中国投资指南.

- 엔타이 한·중 산업단지는 전체 계획면적이 349km<sup>2</sup>에 달하며, 현대서비스업 집적구, 신흥산업 공생구(共生区), 임항(临港)경제구의 3개 지구로 구분되어 있음.
- 한·중 경제협력을 위해 엔타이시는 양국의 인적 교류, 물류, 자금이동, 정보교류 등이 원활히 진행되고 신속한 통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관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임.
- 한·중 산업단지는 제조업 분야에서 첨단장비제조업, 신에너지 및 에너지절약·환경보호산업, 전자정보, 해양프로젝트 및 해양기술 등 신흥산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이며,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보험업, 전자상거래, 문화창의, 헬스서비스, 실버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임.
- 또한 한국의 도시계획설계기관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유명 부동산개발업체, 건축업체와 제휴하여 한·중 산업단지의 산업용 부지 개발, 상업 및 실버 주택 건설 등을 개발할 계획임.
- 칭다오시(靑島市)는 한국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2015년 6월 「한·중 FTA를 통한 칭다오시의 대한민국 개방협력 강화에 관한 액션플랜(关于靑島市抢抓中韩自贸区新机遇提升对韩开放合作水平行动计划)」을 발표함.<sup>23)</sup>
- 상기 액션플랜에 따르면 첨단산업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칭다오시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2020년 대한민국 무역규모를 2015년 대비 2배로 확대하며, 한국과의 전방위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임.
-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 첨단산업 협력 강화 △ 한·중 산업단지 건설 △ 서비스업에서의 대한민국 개방 확대 △ 칭다오기업의 한국 투자 확대 △ 해양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및 교류 강화 △ 금융부문에서의 협력과 혁신 도모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육성 △ 대한민국 상품무역 규모 확대 △ 한·중 혁신산업단지(中韩创新产业园) 건설 등 17개의 세부 조치를 제시함.
- 칭다오시는 헬스·의료, 관광, 영화,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직업교육, 도시계획, 비즈니스서비스, 제3자 검사, 자동차서비스, 중개서비스(회계, 법률) 등 서비스업에서의 10대 협력분야를 선정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임.
- 상품무역 확대를 위해 한·중 수출입 인증업체(AEO) 상호인증, 신속통관, 화물검사 간소화 등 무역 편리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한국의 첨단기술설비와 핵심부품의 수입 장려와 함께 한국의 유제품, 화장품,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의류 등 중고급 소비재의 수입을 확대할 계획임.

## 4. 평가 및 전망

### 가. 지역 종합

- 2015년 4월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징진지 협동발전 계획강요」(이하 ‘규획강요’)가 심의·통과됨에 따라, 지역별 13·5 규획에 이와 관련한 정책이 적극 반영되어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지난 30여 년간 수도권지역의 협력과 조화발전이 논의되어 왔으나 지역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큰 진전이 없었음. 그러나 2015년 ‘규획강요’가 중앙정부 주도하의 국가전략으로 시행되면서 13·5 규획기간 역내 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각 지역별 13·5 규획에서는 징진지 협동발전을 위한 지역별 추진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특히 베이징은 수도의 핵심기능으로 정치·문화·국제 교류·과학기술혁신에 초점을 맞추되, 그밖의 비수도 기능과 중점육성산업 외의 생산기능을 주변지

23) 「山东靑島发布对韩开放合作17项《行动计划》」(2015.6.3), 『新华网』

역으로 이전할 계획임.

- 텐진은 첨단산업 발전벨트를 조성하여 베이징의 혁신산업과 우위산업을 적극 흡수하고 허베이성과 가치시슬을 연계할 계획이며, 허베이는 산업단지과 공동협력단지 등 베이징의 산업기능 이전을 위한 플랫폼 건설에 주력함으로써 제조업 및 사회공공서비스(의료·교육 등) 기능을 본격적으로 수용할 방침임.
- 산둥은 징진지 협동발전전략의 핵심지역은 아니나 '규획강요'에 따라 더저우(德州) 지역에 징진지 협동발전 시범구를 조성하고, 징진지지역에 우수한 농산물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임.

■ 2020년까지 징진지 통합개발에 42조 위안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환발해지역의 교통인프라 부문이나 환경시장으로의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평가됨.<sup>24)</sup>

- 지난 2015년 12월 8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중국교통운수부는 「징진지 협동발전 교통일체화규획」을 발표<sup>25)</sup> 징진지 지역통합을 위해 종합교통망 구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예정임.
  - 본 규획에 따르면 징진지지역은 2020년까지 교통관리시스템의 스마트화와 격자형 교통네트워크<sup>26)</sup> 구축을 계획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 기업은 각종 도로, 철도 등 교통망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교통시스템 설비시장 진출의 기회로 활용해야함.
- '규획강요'에서는 생태환경의 복원을 위한 지역간 상호협력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어 환경서비스 및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한·중 FTA의 환경분야 성과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환경서비스 및 제품 분야<sup>27)</sup> 진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한·중 FTA가 발효됨에 따라 폐수, 고형 폐기물 처리, 배기가스 정화, 소음저감, 위생서비스 등 5개 환경서비스 분야에서 지분 100%의 한국기업 설립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관련 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됨.
  - 한·중 양국은 '한·중 철강분야 대기오염 방지 실증사업'<sup>28)</sup>의 일환으로 2016년 중국 산둥성과 허베이성 소재 제철소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할 예정임. 이러한 양국간 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중국이 전통산업 개조·업그레이드 프로젝트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동시에, 우리 환경기술의 우수성을 검증하고 후속·파생사업 주를 이끌어냄으로써 한국기업들의 중국 환경시장 진출 확대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환발해지역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일 뿐만 아니라 대중국 소비재 수출이 집중된 지역이므로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지역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2014년 기준 환발해지역은 중국의 대한국 소비재 수입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함.

24) 「《京津冀协同发展规划纲要》获批 将疏散首都经济功能」(2015. 4. 30), 『观察网综合』.

25) 「《京津冀协同发展交通一体化规划》发布」(2015. 12. 9), 『中国交通新闻网』.

26) '사중사횡일환(四纵四横一环)' 네트워크화 추진: △ 사중: 옌하이통로(沿海, 연해), 징후통로(京沪, 베이징과 상하이), 징주통로(京九, 베이징과 주룽), 징청(京承, 베이징과 칭더)—징광(京广), 베이징과 광저우)통로 △ 사횡: 친청장통로(秦承张, 친황다오, 칭더, 장자커우), 징친(京秦, 베이징과 친황다오)—징장(京张, 베이징과 장자커우)통로, 친바오통로(津保, 텐진과 바오딩), 스창통로(石沧, 스자좡과 창주) △ 일환: 수도권 순환 통로

27) 한·중 FTA의 환경제품 관세 철폐 효과를 적극 활용: 산업용 집진기(중국 HS Code 8421.39-21), 오수처리용 가압 여과기(중국 HS Code 8421.29-90), 탈질설비(중국 HS Code 8421.39-50)의 경우 중국 수입관세를 5%가 발효 즉시 철폐됨(장상해 외 2015, 「우리기업이 꼭 알아야할 한·중 FTA 비즈니스 모델 및 활용」, KOTRA.

28) 2014년 7월 체결한 한·중 환경양해각서의 후속조치로 국내 환경기술을 적용해 중국 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기획, 지원하는 협력 사업임.

- 환발해지역에서 한국산 소비재 수입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은 베이징으로, 중국의 대한국 소비재 수입액 가운데 약 49%(2014년 기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향후 교통일체화 추진으로 역내 2시간 교통권이 형성되고, 다방면에서의 지역통합이 이루어질 전망이므로 베이징을 환발해 지역 또는 중국 북방지역의 소비재 수출 거점지역으로 활용해야 함.
  - 환발해지역은 대한국 소비재 수입에서 농식품 비중이 큰 지역임. 향후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한·중 FTA를 통해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농식품의 수출을 적극 확대해야 하며, 특히 중국 내 소득증대와 식품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조미김, 베이커리 제품, 조제분유, 커피 등 가공식품의 수출확대가 기대됨.
- 2015년 기준 한·중 교역에서 환발해지역은 22.5%의 비중을 차지하며 대한국 주요 수입품목(HS 4단위 기준)으로는 자동차 부분품과 부속품, 전자집적회로, 전화기 및 송수신기기, 광학기기(액정 디바이스, 레이저기기) 등이 있음.
- 한국의 대중국 완성차 수출에서 베이징은 가장 주축이 되는 지역이나 2011~15년 연평균 베이징의 대한국 완성차 수입은 12.8%, 자동차 부분품과 부속품은 3.4% 감소했음. 대중국 완성차 수출이 주축하는 가장 큰 원인은 중국 저가 모델의 공세로 인한 판매량 감소로 중국 브랜드와의 경쟁을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 2011~15년 톈진과 산둥의 대한국 송수신기기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산둥의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감률은 44.7%에 달함. 송수신기기(HS Code 8517)는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 품목으로 향후에도 대중 수출 잠재력이 큼.
  - 최근 중국의 스마트기기 시장이 확대되면서 스마트폰, 스마트 TV,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sup>29)</sup> 이는 스마트기기의 고부가가치 부품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게 호재임. 그러나 중국 또한 스마트기기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sup>30)</sup> 수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요구됨.
  - 대중 자동차 부품의 주요 수출지역은 산둥과 베이징이나 허베이 지역으로의 자동차 부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1~15년 연평균 증가율은 44.6%에 달함. 최근 한국의 완성차 기업이 허베이로 진출하면서 관련 부품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나. 베이징

- 베이징의 13·5 계획기간 중점 추진사항은 국제적 영향력을 갖춘 과학기술혁신중심지 건설이며, 이를 위해 중관춘 혁신시범구의 선도적 개혁이 이루어질 예정임.
- 지난 2월 25일 발표된 「수도과학발전지수 2015」<sup>31)</sup>에 의하면 베이징은 혁신 자원이 밀집해있고, 혁신성도가 가장 우수하며 혁신 창업이 활발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음. 12·5 계획기간 베이징의 기술계약 체결액, 특허 출원량, 특허 획득량, 과학기술서비스업 부가가치, 중관춘 시범구 총수입 등의 과학혁신 지표가 2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밝힘.<sup>32)</sup>

29) 장상해 외(2015), 「우리기업이 꼭 알아야 할 한·중 FTA 비즈니스 모델 및 활용」, KOTRA.

30) 「몸에 감기는 착용형 스마트기기」(2016. 3. 6), 『에너지경제』.

31) 수도과학혁신발전지수는 '동태 모니터링 지표(动态监测指标)'로 수도의 과학기술 혁신 발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측정해 새로운 발전 움직임을 추적하고 수도 과학기술 혁신발전 변화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상세하고 확실하게 수도과학혁신발전의 추세와 현 단계의 수준을 알 수 있음.

32) 「“首都科技创新发展指数 2015”发布」(2016. 2. 26), 『中国科技网』.

- 13·5 계획에서는 우수한 과학기술역량을 활용하여 베이징을 과학기술혁신 전략의 거점으로 삼고 중국의 혁신형 국가 건설을 주도할 계획임.
- 베이징시는 2014년도부터 이미 중관춘 첨단기술 산업단지의 구조를 재정비하기 위해 핵심지역에 ‘1성 3가(1城3街)<sup>33)</sup>를 구축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융자난을 해결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활발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음.<sup>34)</sup>
- 또한 13·5 계획기간 중관춘 지역에서 다양한 혁신시범정책이 시행되면서 향후 중관춘이 중국 첨단기술산업 육성의 중심지이자 과학기술혁신의 교두보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 또한 과학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중국과의 과학기술 R&D 협력을 강화해야 함.
- 글로벌 ICT 시장에서 부상 중인 샤오미, 알리바바 등 유수의 중국 기업들이 중관춘에 기반을 두고 성장하였는데 이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과학기술 육성정책과 우수한 창업생태계 조성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음. 한국 또한 IT 강국으로서의 명성을 더해가기 위해 국내 스타트업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양질의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진출 및 연구개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지원이 요구됨.
- 글로벌 IT기업들이 잇달아 중국 내에 R&D 센터를 설립하고 대(對)중 R&D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한국의 일부 기업들도 중국 내 R&D 센터를 보유 중임. R&D 센터의 기능을 현지 시장에 적합한 기술 및 제품개발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중국 기업과 전략적 기술 제휴를 맺고 국가사업에 참여하거나 성·시 정부와 직접적으로 R&D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거점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관련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으로 활용해야 함.
- 2015년 5월 중국 국무원의 승인으로 베이징은 서비스부문의 대외개방 확대를 위해 ‘베이징시 서비스업 확대개방 종합 시범정책에 관한 총체방안(关于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总体方案)’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기업의 서비스시장 진출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베이징시는 2016년 서비스업 확대개방 종합 시범정책(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과 관련한 새로운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서비스업 체계를 완비하고 과학기술, 인터넷 및 정보통신, 여행, 문화교육, 금융, 건강의료 서비스<sup>35)</sup>의 발전을 유도할 방침임.
- 한·중 FTA를 활용한 서비스시장 진출을 적극 확대하되, 특히 여행서비스나 문화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여행서비스의 경우 한·중 FTA 아웃바운드 관광 협력<sup>36)</sup>을 통해, 한국 여행업체가 중국에 진출해 제3국으로 나가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관광 상품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열려 향후 귀추가 주목됨. 추후 관광협력이 이루어진다면 한국기업이 베이징 여행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것임.
- 또한 한·중 FTA를 통해 TV 드라마, 다큐멘터리 및 방송용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할 근거가 마련<sup>37)</sup>되어 향후 미디어 한류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더해 기존에 미개방 분야였던 공연 중개 및 공연장 사업 분야가 제한적으로 개방되어 49% 지분 이하로 한국기업의 합작 진출을 허용해 중국 내에서 상업적 공연을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

33) ‘1성 3가(1城3街)’는 중관춘소프트웨어성(中关村软件城), 지적권·표준화 거리(知识产权及标准化一条街), 혁신창업 거리(创新创业孵化一条街), 과학기술·금융 거리(科技金融一条街)를 의미.

34) 「中关村核心区崛起“一城三街”」(2014. 9. 28), 『人民网』.

35) 「国务院关于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总体方案的批复」(2015-05-21), 『中国政府网』.

36) 한·중 FTA 협정문 경제협력 파트 제17.22조에 “한국 관광회사의 지원과 관련하여, 중국은 지원한 한국 회사가 중국 관련 법 및 규정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경우, 한국 관광 회사의 아웃바운드 관광 사업 운영 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데 우선권을 부여할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37) 한·중 FTA 협정문 서비스무역 부속서 8-다에서는 “양 당사국은 텔레비전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에 대한 공동제작 협정을 검토하고, 양 당사국의 각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협상을 개시하는 데 합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다. 텐진

- 13·5 계획기간 텐진은 전국적인 선진제조 연구개발기지를 건설하고, 현대서비스업의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의 융복합 및 고도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임.
- 「중국제조 2025」와 연계하여 스마트 제조 시범지역을 건설하고 장비제조, 차세대 정보기술, 항공우주, 바이오 의약, 신에너지 등 10대 선진제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임.
- 또한 현대물류, 전자상거래, 과학기술서비스 등 생산자 서비스업과 관광, 문화, 체육서비스 등의 소비자 서비스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현대서비스 경제에 새로운 체계를 구축해갈 것으로 전망됨.
- 텐진이 육성하고자하는 선진제조업 분야 중 차세대 정보기술, 신에너지 등은 한·중 양국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화서비스 등 한국이 경쟁우위에 있는 분야는 협력 및 진출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텐진은 13·5 계획기간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시험구 건설을 위한 제도혁신을 단행하여 행정의 고효율화, 투자 자유화, 무역 편리화, 금융 국제화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중국의 북방지역으로 진출하려는 한국기업에게 더욱 개선된 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13·5 계획기간 텐진 자유무역시험구의 투자자유화 촉진을 위해 현대서비스업 및 선진제조업 시장진입 완화, 해외 투자제한 완화, 외국인투자 감독 체계를 완비할 방침이며, 특히 해운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장비제조, 차세대 정보기술 분야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의 적극적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sup>38)</sup> 관련 분야 투자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제무역 서비스 기능을 완비하고 국제무역 창구단일화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수출입 기업의 통관비용 절감 및 통관 소요시간의 단축 등 통관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라. 허베이

- 13·5 계획기간 허베이의 주요 정책 방향은 징진지 협동발전계획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이며, 특히 베이징의 산업기능 수용에 역점을 둘 것으로 평가됨.
- 허베이는 베이징의 제조업 기능 이전을 위한 플랫폼을 건설하고 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기능을 본격적으로 수용할 방침임.
- 또한 제조업 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철강 산업의 첨단화, 장비제조업의 스마트화, 건축재료 산업의 녹색화를 추진할 예정임.
- 2020년까지 공업부가가치에서 전략적 신흥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20%까지 제고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바이오의약 등의 신흥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어서 허베이의 전반적인 산업 업그레이드가 기대됨.
- 징진지지역의 역내 산업구조가 재배치됨에 따라 지역간 산업사슬이 더욱 긴밀해질 전망으로 베이징과 텐진의 배후 생산

38) KITA 북경지부(2015),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현황 및 발전방향」, KITA.

기지로 허베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 장진지지역의 조화발전을 위해 베이징·톈진에 비해 낙후된 지역인 허베이의 신형도시화가 적극 추진될 계획이므로 건설 인프라의 수요 증가, 인구 유입 등을 고려한 신시장으로서의 가능성도 검토해야 함.
- 허베이는 제조업 기능이 이전되는 지역으로 장비제조, 자동차 분야의 우리기업 진출이 확대되고 있음. 베이징이나 톈진에 공장과 물류기지를 두었던 기업들도 허베이로 공장을 확대·이전하고 기존의 거점들과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관련 부품 등 중간재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다. 산둥

■ 13·5 계획기간 산둥은 스마트시티 건설을 통한 혁신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음.

- 산둥은 혁신정책의 일환으로 '스마트 산둥'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임.
  - 「인터넷 플러스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정보기술과 산업의 심층적 융합을 통한 스마트시티 건설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차세대 인터넷, 방송망, 광대역 통신망 등 기초인프라를 구축하고 사물인터넷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광범위하게 운영할 방침임.
  - 스마트시티 건설은 전력, 가스, 교통, 방범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화하는 것으로 관련 솔루션 및 제품을 보유한 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13·5 계획기간 산둥은 '양구일권일대(两区一圈一带)' 정책을 통해 지역간 균형 발전을 추진할 계획임.
  - 산둥반도남색경제구에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첨단산업 및 해양경제클러스터를 건설하고, 황하삼각주경제구에는 농업첨단 기술산업시범구 건설, 지난(济南)에 금융, 물류센터와 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산둥의 종합 경쟁력이 향상 될 것으로 평가됨.

■ 13·5 계획기간 산둥성은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시범구와 산업협력단지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무역, 투자, 서비스, 산업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 산둥성은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시범 지역인 웨이하이(威海)시 및 한·중 산업협력단지로 지정된 옌타이(烟台)시가 모두 입지해 있어 한·중 FTA의 거점지역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과 산둥성 웨이하이시는 한·중 FTA의 단일 시범협력 지역으로 선정되어 무역, 투자 등 협력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게 되어 있음. 인천과 웨이하이 간 시범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여 중국 전 지역으로 교류 및 투자를 확대해야 함.
  - 2015년 인천 송도에는 산둥성 중소기업 제품이 판매되는 '웨이하이관'이 들어섰고, 산둥성 칭다오에는 인천 식품제조업체들이 입점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미추홀 식품관'이 개설됨.<sup>39)</sup> 이러한 교류 사업의 범위를 넓혀 우리 기업의 다양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대중 수출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활용해야 함.
  - 2016년 3월부터 중국 우정특송물류회사의 산둥성 지사와 한국 우정사업본부가 합작하여 한·중 해상특송서비스(Sea Express)를

39) 「韩仁川市与山东省举行联席会议 磋商各领域合作方案」(2016. 3. 2), 『环球网』.

정식 실시함. 해상특송서비스는 인천-웨이하이 간 페리선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물품을 중국 전역으로 운송하는 것으로, 인천에서 웨이하이까지 14시간 안에 도착이 가능하고 물류비용도 절감되어 한·중 전자상거래의 주요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됨.<sup>40)</sup>

- 한·중 FTA를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된 엔타이 한·중 산업단지는 신흥산업구(新兴产业区), 임항경제구(临港经济区), 현대서비스업집중구(现代服务业聚集区)로 구성됨.<sup>41)</sup>
- 신흥산업구에서는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전자정보, 해양기술 등을 육성하고, 임항경제구에서는 물류, 무역, 전자상거래, 현대서비스업집중구에서는 금융보험, 문화창의, 의료건강, 양로 등의 산업에 집중할 계획임. 향후 엔타이시는 관련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므로 의료서비스, 애니메이션 산업 등 우리 기업이 경쟁우위에 있는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출 기회를 확보해야 함.
- 2015년 8월 경기도 부천시 산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엔타이시와 한중만화영상체험관 건설 협약을 맺고 2016년 5월 개관할 예정<sup>42)</sup>으로 한·중 양국의 만화영상 교류의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됨. 체험관은 한국만화영상자료와 작가를 소개할 예정으로 한국 만화가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평가됨.

40) 「山东-韩国海运邮件跨境业务开始运行」(2016.02.29), 『中国邮政报』

41) 「烟台中韩产业园打造中韩产业合作“升级版”」(2015.10.14), 『大众网』

42) 「韩中漫画影像体验馆5月将在烟台开馆」(2016.02.29), 『云浮在线』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KIEP 북경사무소. 2015. 「장진지협동발전계획강요 발표」. KIEP.  
 \_\_\_\_\_, 2016. 「공급측개혁의 주요 내용과 전망」. KIEP.  
 KITA 북경지부. 2015.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현황 및 발전방향」. KITA.  
 양평섭 외. 2015. 「중국 13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장상해 외. 2015. 「우리기업이 꼭 알아야할 한중 FTA 비즈니스 모델 및 활용」. KOTRA.

### [중문자료]

- 「2016年北京市政府工作报告」.  
 「2016年山东省政府工作报告」.  
 「2016年天津市政府工作报告」.  
 「2016年河北省政府工作报告」.  
 「京津冀协同发展纲要引发全国关注」. 2015. 5. 1. 『ycmh.com』.  
 「《京津冀协同发展交通一体化规划》发布」. 2015. 12. 9. 『中国交通新闻网』.  
 「《京津冀协同发展规划纲要》获批, 将疏散首都经济功能」. 2015. 4. 30. 『观察者网综合』.  
 「官方明确京津冀功能定位 北京担当“四个中心”」. 2015. 8. 23. 『中国新闻网』.  
 「关于加快首都科技服务业发展的实施意见」. 2015. 5. 12. 北京市人民政府.  
 「关于印发促进生物医药产业加快发展的实施方案的通知」. 2015. 4. 15. 河北省发展和改革委员会.  
 「关于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建设国家科技金融创新中心的意见」. 2012. 8. 3.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国务院关于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总体方案的批复」. 2015. 5. 21. 『中国政府网』.  
 「德州纳入京津冀规划 详解“一区四基地”战略地位」. 2015. 7. 15. 『齐鲁网』.  
 「把握新定位, 适应新常态, 为全国科技创新中心建设作出新贡献」. 2015. 2. 28. 『新华网』.  
 「北京技术创新行动计划(2014-2017年)」. 2014. 5. 13. 北京市人民政府.  
 「福布斯中国“30岁以下”创客榜: 中关村占半」. 2015. 3. 9. 『千龙网』.  
 「山东烟台市扎实推进烟台中韩产业园建设」. 2015. 4. 30. 中国投资指南.  
 「山东威海加速对韩合作 成中韩交流走廊」. 2015. 9. 24. 『中国新闻网』.  
 「山东青岛发布对韩开放合作17项《行动计划》」. 2015. 6. 3. 『新华网』.  
 「山东-韩国海运邮件跨境业务开始运行」. 2016. 2. 29. 『中国邮政报』.  
 「首都科技创新发展指数五年连增. 人均GDP达1.7万美元」. 2016. 2. 25. 『中国新闻网』.  
 「“首都科技创新发展指数 2015”发布」. 2016. 2. 26. 『中国科技网』.  
 「首都中长期人才发展规划纲要(2010-2020年)」. 2010. 8. 3. 北京市人民政府.  
 「烟台中韩产业园打造中韩产业合作“升级版”」. 2015. 10. 14. 『大众网』.  
 「粤苏进七万亿俱乐部, 供给侧改革成各省实现目标重要途径」. 2016. 1. 28. 『人民网』.  
 「威海开通全国首个中韩海运跨境电子商务通道」. 2015. 3. 3. 『威海网』.

- 「中关村核心区崛起“一城三街」. 2014. 9. 28. 『人民网』.
- 「中共北京市委关于制定北京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
- 「中共山东省委关于制定山东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
- 「中共天津市委关于制定天津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
- 「中共河北省委关于制定河北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
- 「借展会抢抓中韩自贸区先机 济南打造鲁韩经贸桥头堡」. 2015. 6. 5. 『凤凰网』.
- 「天津启动十个科技重大专项与工程」. 2015. 9. 16. 『新华网』.
- 「天津国家自主创新示范区发展规划纲要(2015-2020年)」. 2016. 1. 5. 科学技术部.
- 「天津出台推进电子商务发展三年行动计划, 2016年将成中国北方电子商务中心城市」. 2015. 5. 6. 『天津日报』.
- 「《促进河北省装备制造业加快发展实施方案》发布」. 2015. 3. 17. 『中国证券报』.
- 「河北省2015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2016. 2. 25. 河北省统计局.
- 「河北: 产业结构调整取得明显成效」. 2015. 11. 11. 『中国经济网』.
- 「韩仁川市与山东省举行联席会议, 磋商各领域合作方案」. 2016. 3. 2. 『环球网』.
- 「韩中漫画影像体验馆5月将在烟台开馆」. 2016. 2. 29. 『云浮在线』.

## [ 웹사이트 ]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 CEIC Database.
- 北京市统计局. <http://www.bjstats.gov.cn/>.
- 北京市人民政府. <http://www.beijing.gov.cn/>.
- 山东省人民政府. <http://www.shandong.gov.cn/>.
- 山东省统计局. <http://www.stats-sd.gov.cn/>.
- 中国政府网. <http://www.gov.cn/>.
- 天津市人民政府. <http://www.tj.gov.cn/>.
- 天津市统计局. <http://www.stats-tj.gov.cn/>.
- 河北省人民政府. <http://www.hebei.gov.cn/>.
- 河北省统计局. <http://www.hetj.gov.cn/>.